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도 서사무가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 연구

— 「할망본풀이」와 「일췌당본풀이」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李炫靜

2014年 8月

제주도 서사무가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 연구

— 「할망본풀이」와 「일뤼당본풀이」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許 南 春

李 炫 靜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4年 6月

李炫靜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4年 6月

A Study on the Formation Principles of
shamanistic Songs 「Halmang-bonpuli」 of Jeju Island
– Based on the analysis of influencing relationship between
「Halmang-bonpuli」 and 「Illetddang-bonpuli」 –

Hyeon-Jung Lee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un He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4.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Nam-Chun Heo, Prof. of Literature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방향과 방법	9
4. 연구범위	12
II. 제주도(濟州島) 산육신의 좌정과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	14
1. 「할망본풀이」 형성의 근거	14
1) 「할망본풀이」 채록본의 비교·검토	14
2) 선천적 배경의 혼재와 대립	17
3) 자질적 특성의 부각과 대립	22
2. 「일뤼당본풀이」의 변용과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	29
1) 「일뤼당본풀이」 채록본의 비교·검토	30
2) 「할망본풀이」의 형성과 「일뤼당본풀이」의 상관성	37
III. 「할망본풀이」와 제주도 산육신(產育神) 신앙체계의 특성과 미학	44
1.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와 제주도 산육신 신앙체계의 특성	44
1) 고유신격과 유입신격의 이중 구조	44
2) 신격과 신화적 사유의 수용과 변용 양상	51
(1) 산육신 신격의 길항작용	51
(2) 신화적 사유의 길항작용	56
2. 「할망본풀이」와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의 미학적 가치	62

1) 통일성의 미학	63
2) 상생의 미학	64
IV. 결론	66
<참고문헌>	70
<부록>	74
<Abstract>	79

▶ 표 차 례

[표 1] 「할망본풀이」 이본 비교 목록	12
[표 2] 「할망본풀이」에 나타난 두 여신의 출생내력 비교	17
[표 3] 토산리 「일뤼당본풀이」 이본 비교 목록	31
[표 4] 토산리 「일뤼당본풀이」 이본의 비교·검토	32
[표 5] 토산리 「일뤼당본풀이」 이본의 준거별 비교	36
[표 6] 「할망본풀이」와 토산리 「일뤼당본풀이」의 성격 비교	38

I. 서론

1. 연구목적

수태신(受胎神)과 관련된 신앙(信仰)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던 기자신앙(祈子信仰) 체계의 일부이다. 이러한 신령체계의 기원은 각기 다르다. 오랜 인도교와 불교로부터 전래되어 기원하였거나, 동아시아와 동남아 본토의 토속 종교와 민간 신앙에서 탄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따름이다.¹⁾

자식 낳기를 소망하여 행해진 제반(諸般) 습속(習俗)을 기자속(祈子俗)이라 한다. 기자속은 신앙적(信仰的)인 측면과 함께 속신적(俗信的)으로도 오랜 동안 공존하며, 본토에 전승(傳承)되었다. 신앙적 측면의 기자행위는 자식을 짐지해준다고 여겨지는 신적 존재에게 직접 발원치성(發願致誠), 무의(巫儀), 불의(佛儀) 등의 각종 제의(祭儀)를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속신적 측면의 기자행위는 주술적 사물이나 풍수, 공덕(功德), 의약(醫藥)에 관한 기자속신(祈子俗信)의 이행을 의미한다.²⁾ 전자(前者)를 치성기자(致誠祈子), 후자(後者)를 주술기자(呪術祈子)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술기자(呪術祈子)는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신앙민의 인지(認知)능력 심화, 문명의 발달로 점차 소멸되어 가는 수순을 밟았다. 상대적으로 치성기자(致誠祈子)는 전승력(傳承力)을 유지하고 있다. 주술기자에 비해 치성기자에 신앙성, 종교성, 공동체성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자속의 신앙적 측면 중, ‘삼신’(産神)을 신(神)으로 믿는 종교현상과, 신앙행위, 그 문화 전반을 포괄하여 ‘삼신신앙’이라 일컫는다. 삼신신앙의 실체는 실로 다양하다. 그러나 삼신의 실체(實體)가 존재하고 활동력을 발휘하는 권역은 우리나라 전국에 집중되어 있다.³⁾ 삼신은 향간에서 아기의 잉태(점지), 복(服) 중 태

1) Yuan Quan, 'Praying for Heirs : The Diffusion and Transformation of Hārītī in East and Southeast Asia', 『중국사 연구』 74권, 중국사 학회, 2010 참조.

2) 朴種翼, 『韓國敍事文學의 祈子信仰 研究 — 文獻說話 古典小說을 中心으로 —』, 忠南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989, 6쪽.

아의 무탈, 산모(産母)의 순산에 관여하는 여신이다. 그리고 일정 연령대에 이르기까지 아기의 건강과 복록을 책임지기도 한다. 이 신격(神格)은 삼신, 삼시랑, 지양할매, 삼신할머니, 삼신단지, 삼신바가지, 삼성할망⁴⁾, 세준할머니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나, 전국 공통으로 삼신이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⁵⁾

본디 ‘삼신’이라는 신명(神名)은 ‘삼줄’, ‘삼가르다’ 등의 고어형 의미로 짐작건대, 포태(胞胎)의 뜻을 지닌다.⁶⁾ 그러나 삼신은 기자와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育兒)의 범주까지 관장하는 신격이다. 그러므로 ‘삼신’은 우리나라의 산육신(産育神)이다. 삼신신앙은 불교·도교·애니미즘 등의 총체적 영향을 받으며 체계화하였다. 따라서 삼신신앙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다면적인 고찰이 필수적이다. 본래 우리나라의 토착적 신앙이었으나, 점차 외래종교들과 습합하여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토착적 민간신앙은 그 원형을 무속(巫俗)에서 찾을 수 있다. 외래의 종교가 유입되었어도 무속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원형을 담고 있었기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민간신앙의 바탕이 되어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 하나의 현상에 따른 총체적 이해는 토착 신앙 속의 산육신을 구명(究明)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을 때, 보다 수월한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무속에서 삼신신앙을 논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서사무가이다. 본디 서사무가의 연창은 곳의 연행에 수반되어야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무속 내지 신앙에 대한 인식론적 관념은 신앙적 의례의 형태와 그에 부수되는 제의 언어를 통해 그 성격과 양상이 쉽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분리된 원형적 서사로서의 무속신화 역시, 전승자의 의식을 견고한 스토리로 구조화하여 함축한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서사무가의 속성은 신화공동체의 체계적인 세계관 분석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의례에서 드러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⁷⁾

3) 박홍주, 「삼신신앙과 태줄간의 상관성,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 『태줄과 생명』, 비교민속학회 춘계 학술대회집, 비교민속학회, 2014, 132쪽.

4) ‘생불할망’, ‘삼승할망’, ‘삼성할망’, ‘불도할망’, ‘맹진국할망’ 등 제주도에서 삼신할머니를 지칭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제주도 민간에서 가장 흔한 방언형으로 나타나는 ‘삼성할망’으로 용어의 사용을 통일한다. 또한 ‘삼성’, ‘삼승’으로 나타나는 신격의 명칭을 ‘삼신’의 제주방언형으로 보고자 한다.

5) 오출세, 『한국민간신앙과 문학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2, 24쪽.

6)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www.culturecontent.com

7) 신동훈, 「무속신화를 통해 본 한국적 신 개념의 단면 — 신과 인간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 『비교민속학』

본토부의 「제석본풀이」와 제주도의 「할망본풀이」는 삼신의 내력을 담은 대표적인 서사무가이다.⁸⁾ 「제석본풀이」의 이본들은 전국 각지에서 전승되며 채록된다. 반면, 「할망본풀이」는 제주도 무속에서 독자적으로 전승된다. 산육신인 삼신의 내력을 다루었으니 두 서사무가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⁹⁾ 그러나 그 내용은 매우 상이하므로 서로 별개의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산육신을 통념적으로 ‘삼신’이라 지칭하면서, 지역적으로 상이(相異)한 서사무가가 전승되고 있는 양상에는 그 이면에 반드시 고찰하여야 할 문제가 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드물다는 것이 커다란 의문이다.

또한 제주도에 산육신과 관련한 다수의 서사무가가 존재한다. 일반신본풀이인 「할망본풀이」, 「일렛당」, 「불돛당」과 얽혀 전승되는 당신본풀이 등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 전국적인 신격인 삼신과 토착적인 당신의 전승이 공존하고 있는 양상을 띤다. 이들은 모두 산육신으로 기능한다. 한 지역에서 매우 많은 수의, 그것도 동일한 직능을 지닌 신이 존재하는 일은 흔치 않다. 「할망본풀이」가 보이는 서사 전개 특이성은 이 같은 제주도의 특징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할망본풀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이것의 형성에 제주도의 당신본풀이가 긴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고자 한다. 덧붙여 「할망본풀이」가 지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본토부의 삼신의 특성과도 비교·고찰하겠다. 삼신과 관련한 독자적인 무속신화가 유독 제주에만 자리매김 하게 된 원인을 명료히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에 대한 의문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근거를 얻을 수 있다.

그 동안 「할망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의 영향 관계를 논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편수가 너무 적고, 현상의 본연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러므로 「할망본풀이」와 당신본풀이 양자 간의 구체적인 검토

』 제43집, 2010, 351쪽.

8) 제주도의 일반신 본풀이 중, 산육신과 관련된 본풀이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마누라본풀이」를 제외한 생불할망(명진국아기씨)와 저승할망(동해용왕아기씨)에 관련된 모든 본풀이를 「할망본풀이」로 지칭하고자 한다.

9) 현용준은 제주도의 삼성할망이 본토의 ‘삼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현용준, 『濟州道 巫俗과 그 周邊』, 집문당, 2002, 197쪽.

10) 「제석본풀이」는 당금애기와 아들 삼형제의 좌정 과정을 다룬다. 이본에 따라 좌정 신격이 일말 상이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당금애기는 산육신인 ‘삼신’으로, 삼형제는 인간수명과 재산 등을 관장하는 ‘제석신’으로 좌정한다. 또한 「할망본풀이」는 인간 세상에 생불(생명)을 주고, 아기가 15세가 될 때까지 수호해주는 ‘삼성할망’의 일대기를 다룬 서사무가이다.

를 통해, 산육신 관련 서사무가의 형성 과정에 담긴 신화적 의의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본고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덧붙여 서사무가의 형성과, 신앙 체계의 성립은 역사적·문화적 변화의 총체를 반영하는 인식적 저층(貯層)임을 방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서사무가의 형성 원리가 관련 의례, 일반 민속 등에 두루 적용됨을 증명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그 후에 제주도의 독특한 산육신(産育神) 신앙 체계에서 미감(美感)을 추출하겠다.

실생활인 신앙, 민속 등에 서사무가의 형성원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 경우 서사무가는 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련 신앙 체계 전반의 특성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할망본풀이」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가장 적합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이 글은 「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산육신 체계의 형성에 담긴 원리와 신화적 의의, 미학적 가치를 구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상의 실체에 접근을 위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산육신 관련 본풀이 연구의 성과를 살펴야 한다.

산육신과 관련된 제주도의 서사무가는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제주도 일반신 본풀이에 두루 나타나는 ‘꽃’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나, 삼성할망과 관련된 큰 곳의 제차(祭次), 무속 의례에 담겨진 원리와 예술성, 제주인의 기층의식 등에 주목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먼저 이수자¹¹⁾는 큰 곳의 구조 체계와 본풀이의 상관성을 다룬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할망본풀이」와 <불도제>¹²⁾, 삼신 신앙 전반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11)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104~110쪽 ; 「무속신화 「생불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여신상, 여성상」, 『이화어문논집』 제14집, 이화어문학회, 1994 ;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 『민요, 무가, 탈춤 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태학사, 1998.

12) <불도제>는 <불도맞이>, <불도맞이굿> 등으로도 불린다. 아이가 열다섯 십오 세가 될 때까지 잘 키워달라고 삼성할망에게 비는 산육·기자의례이다. 아기를 못 낳은 사람, 아기가 자주 유산되거나 낙태를 한 사람들도 삼성할망에게 비는데 가정에서 하는 곳의 규모로는 제일 커서 큰곳과 비슷하다. 지역에 따라서

확장시켰다. 먼저, 큰 곳의 차례와 각 절차의 제의적 성격으로 <불도제>가 탄생의 원리를 다루고 있음을 구명하였다. 그리고 「할망본풀이」의 서사적 전개가 생불신(산육신)으로서의 자격을 온전하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조합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신화 집단이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과 사유에 관심을 가졌다. 「할망본풀이」에도 이러한 신화적 시각이 개입하여, 삼성할망이라는 여신을 형상화 하고 있음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삼신 신앙의 원류를 관련 의례와 본풀이의 상관성 안에서 해명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승환¹³⁾은 「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와 제주인의 우주관, 윤리관, 여성관의 상관성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두 서사무가에는 이승과 저승의 이분법적 사고, 저승과 천상의 연결, 선과 악의 대립과 선의 승리, 여성신과 남성신의 대립과 여성신의 승리 등이 「할망본풀이」에 존재하는 것에 착안하였다. 그리고 곧 이것이 도민의식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라 주장하였다.

또한 「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생불꽃’의 상징이 신화, 종교, 의례, 고소설에 어떠한 형태로 전승·변용되는가도 살피었다. 그 결과 생불꽃 화소는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한 신화적 사고의 표현이며, 새로운 생명의 잉태와 출산에 원초적 의미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원초적 의미는 고소설에서 퇴색되어 합리적 사고로 변모하는데,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정을선전」을 근거로 들었다.

유효철¹⁴⁾도 「할망본풀이」에 나타난 꽃의 기능에 주목하였다. 또한 서천꽃밭의 공간적 형상의 특성을 고찰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꽃 피우기 경쟁’ 화소가 「창세가」에서 단순히 승패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반해, 「할망본풀이」에서는 생명의 탄생과도 결부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화(呪花) 기능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서천꽃밭은 「이공본풀이」에 비해 이승의 이미지가 두드러지며,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꽃을 주관하는 신들의 권위가 주화의 기능과 상관성을 지닌다고 역설하였다.

는 ‘애기맞이굿’이라고도 하는데, 아이나 자손이 하는 일 마다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의례이다. 15세가 넘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의 발복을 위하여 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양영자, 「제주민요에 형상화된 삼성할망」, 『한국민요학』 제36집, 한국민요학회, 2012. 252~253쪽. 또한 15세 전에 죽은 아기의 원혼을 달래고 저승으로 편안히 보내기 위하여 불도맞이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13) 현승환, 「삼성할망 본풀이에 나타난 도민의식」, 『濟研』 創立20周年紀念 第七輯, 濟州大學校 濟州道問題研究會, 1985. 33~48쪽 ;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13호, 제주문화, 1997.

14) 유효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 「이공본풀이」와 「삼성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4.

심치열¹⁵⁾은 「할망본풀이」의 서사가 ‘추방담 → 시련담 → 업무완수’로 세 단계의 연속적 진행을 갖춘 구조라 보았다. 이러한 서사진행은 ‘동기부여 → 능력 실현 → 좌절’이라는 서사적 유기성을 갖으며,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도 서사적 진행상 신격의 좌절담이 동일한 양상임을 피력하였다.

이상으로 「할망본풀이」 중심의 연구를 살핀 바, 「할망본풀이」의 국문학적 의의를 도출하는 연구들은 그 범주를 일반신 본풀이에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채록본 중에서도 일부만을 대상으로 취급하였다. 때문에 다수 존재하는 「할망본풀이」 이본들의 변형에 대한 추이를 역추적하여 그 변형의 원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 이경하¹⁶⁾의 연구는 90년대에 선행되었으나, 본풀이에 대한 ‘서사시적 연구’를 표방하였다. 특히 일반신본풀이뿐만 아니라, 당신본풀이까지 접근 영역을 넓히고 있어 그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는 「할망본풀이」에 나타난 동해용왕아기씨의 내력담이 여신의 내력을 노래하던 서사시에서 남성영웅서사시의 일반적인 구조의 영향을 받아 변모한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이 당신본풀이와는 무관한 별개의 변모 양상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할망본풀이」가 모성성을 강조하는 여성서사시로 「초공본풀이」의 모성성과 연계하여 해석되고 있어 비판의 여지가 존재한다.

「할망본풀이」가 산육신의 내력담으로 주목을 받은 반면, 당신본풀이를 산육신 신앙과 관련하여 살핀 경우는 현저히 적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할망본풀이」가 당신본풀이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유형으로 일반신본풀이로서는 비교적 토착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한 강정식¹⁷⁾의 연구는 위의 문제를 환기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이 연구에서 「할망본풀이」의 전승양상이 매우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음에 착안하여 이본들을 분석하고, 「할망본풀이」가 개별신의 좌절담에 경쟁담이 추가된 결합형 본풀이임을 밝혔다. 또한 「할망본풀이」와 「일렛당본풀이」의 공통요소 — 등장한 신격의 유사성, 당신본풀이의 화소 수용, 서사무가의 결합

15)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 「삼승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韓國言語文學』第 59輯, 韓國言語文學會 2007.

16) 이경하,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17) 강정식, 「할망본풀이의 전승양상」, 『본풀이의 세계』,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 발표집, 2003.

방식, 서사무가의 피카레스크식 구성 등 — 를 근거로 「할망본풀이」의 토착성을 밝힌 바 있다. 「할망본풀이」의 채록본이 총체적으로 검토된 점, 전승의 분화 양상을 근거로 형성 과정을 추론한 점 등은 「할망본풀이」 연구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허나, 두 신격의 상호교섭성이 지니는 신화적·전승적 의의나, 「할망본풀이」의 특수한 신화 구성의 원리가 주는 미감(美感)까지 논지를 확대하지 않고 있어 아쉽다.

「할망본풀이」의 서사구조에서 특이하게 발견되는 투쟁담에 주목한 김현선¹⁸⁾의 연구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할망본풀이」의 ‘인세차지경쟁’ 화소가 여타 신화에서 엿볼 수 있는 투쟁담의 변이형임을 밝히고, 「천지왕본풀이」와의 연계선상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또한 「할망본풀이」가 구비서사시의 속성을 지니며 당신본풀이의 서사문법으로 형성되었기에, 토착신과 외래신의 충돌이라는 신화공동체의 담론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들은 대략적 검토에서 그쳤을 뿐, 구체적 비교가 없는 것이 한계이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권복순¹⁹⁾의 연구가 존재한다. 해당 연구는 「천지왕본풀이」와 「할망본풀이」에 동일하게 나타난 투쟁담을 중심으로, 본풀이 인물들을 비교·검토하여 그 신화적 의미를 밝힌 데 의미가 있다. 「할망본풀이」와 「천지왕본풀이」를 비교할 때, 꽃 피우기 경쟁담의 차이는 인간의 사회질서 및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로 보았다. 아울러 「할망본풀이」 상에 드러난 선과 악의 대립은 애초부터 신직의 분리성이 전제된 당연한 결과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할망본풀이」의 형성이 단편적인 시간에 한정되어 발생한 것으로 치부될 위험성이 있다.

최근에는 「할망본풀이」나 삼승할망을 주요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 영역이 국문학에서 나아가 민속학, 문화콘텐츠학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임은 틀림없다.

김은희²⁰⁾는 <불도맛이>에서 진행되는 <수룩침>, <할망드리추김>, <악심꽃 꺾음>, <꽃 타러 듭>, <꽃풀이>의 굿놀이의 구성과 특성을 주요 논제로 삼았다.

18) 김현선,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투쟁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 『민속학연구』 제17호, 국립민속박물관, 2005.

19) 권복순, 「「천지왕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의 인물의 기능과 그 의미 : 신직차지하기 경쟁신화소를 중심으로」, 『어문학』 제116집, 한국어문학회, 2012.

20) 김은희, 「제주도 굿놀이의 특징 연구 : 「불도맛이」의 굿놀이 연행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곳 채록본 간 <불도맛이>의 연행절차를 비교하고, 구삼성할망, 삼성할망, 서산국마누라, 서천꽃밭 꽃감관의 내력을 엮은 본풀이의 결합 방식과 맛이 의례가 서로 긴밀한 영향관계를 맺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굿놀이는 본풀이 속 신화 세계가 현실로 전환되어 구현되는 하나의 방식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본풀이와 의례의 상관성을 다룬 이수자의 연구 성과에서, 더욱 실질적이고 심화된 측면으로 연구를 진행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양영자²¹⁾는 <애기구덕흥그는소리>, 안녕기원요와 벽사의식요 등과 같은 의식요에서 삼성할망이 무속을 넘어, 민요에 수용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러한 확장 양상은 삼성할망이 제주사회의 중요한 담론이며, 일정한 사회적 기능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고 역설하였다. 삼성할망과 관련된 민요 중에 무가(巫歌)에서 흘러들어 내용은 단편적이고 평이하게 압축되었다. 그러나 구연의 범위는 일상생활로 확장되어, 삼성할망이 더욱 대중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삼성할망과 관련된 민요에 나타나는 관용구·반복구, 삼성할망에 대한 지칭·호칭, 그리고 신격을 수식하는 용어에서 제주사람들의 인식체계가 반영되었음을 밝히고자 주력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양상은 제주사회가 삼성할망의 직능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기 때문이며, 가장 근원적인 숭배와 경외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라 분석하였다.

한편, 「할망본풀이」의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스토리텔링 과정을 거쳐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가 김미정²²⁾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 기존의 「할망본풀이」가 삼성할망의 좌정과정과 인간탄생에 대한 해답을 다루었다면, 스토리텔링으로 새롭게 구현된 「할망본풀이는」 삼성할망을 요정으로 등장시킨다. 그리고 현대적 관점에서 불임과 저출산의 사회적 환경을 지적한다. 이는 「할망본풀이」를 인간 생명 존중 사상에 중점을 두고 콘텐츠화 한 것이다.

이처럼 서사무가를 박제된 대상이 아닌, 문화원형으로 보는 시각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창조적 계승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므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실제적인 적용과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콘텐츠화 한 성과물에

21) 양영자, 앞의 글.

22) 김미정, 「제주 「삼성할망본풀이」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2.

대한 실천의 방향이 함께 제시되었을 때, 이러한 연구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3. 연구방향과 방법

위와 같이 문제 상황과 선행 연구를 검토한 바, 국문학의 관점에서 「할망본풀이」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본고의 역할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가다듬고, 각 장에 차용될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할망본풀이」의 채록과 전사 작업은 최근에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의 채록본들까지 섭렵하지 못한 채, 「할망본풀이」를 부차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최근까지 채록된 각 편의 비교와 자료의 존재양상을 다시금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본비교(異本比較)를 통해,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서지학의 관점과 부합하면서도 다르다. 서지학적 방법으로 서사무가 연구에 접근할 때, 원전(原典)을 밝히는 일은 매우 어렵다. 무가의 발생(發生)과 전승의 정확한 시기를 밝히기 힘들고, 선본(善本)을 삼는 준거 또한 모호하다. 이본 간의 우열 관계를 정하고, 원전을 찾는 것이 서지학의 기본이므로 서사무가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서사무가의 전승은 현재까지 실제 제장(祭場)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원형의 복원보다 형성 이면에 담긴 신화공동체의 인식 변화 과정을 살피는 것이 더 적합하다. 설사, 문헌화된 서사무가라 하여도 이들은 원시시대와 고대·중세·근대를 거쳐, 신화 공동체의 신화적 사유가 총 집약된 지적 산출물이다. 따라서 이 편차들이 지닌 경향성을 준거로 서사무가의 형성원리와 신화적 사고의 변화를 방증할 수 있다.

하나의 서사무가가 생성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원인을 전승민(傳承民)들의 문화의식이나 생활구조에서 찾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승이 되는 신화는 그 자체로 고정되지 않고, 전승된 시대의 신화적 논리성과 합리성을 담는다. 하나의

서사구조 안에서 원시성, 고대성, 중세성을 아울러 고찰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신화의 유동성 때문이다. 때문에 신화에는 원시적·고대적 사유체계는 물론, 신화공동체의 역사적 인식, 아울러 삶의 궤적을 조명할 근거들이 도처에 분포되어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²³⁾

내용서지학은 지적인 창작물의 원본과 원고를 찾고 작자의 의식구조를 찾는 의도를 지닌다.²⁴⁾ 서사무가의 이본 비교는 원본과 원고를 구하지는 않으나, 지적인 공동의 창작물로부터 전승자들의 의식구조와 함께 변화 과정을 추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서지학적 연구가 국문학 연구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면, 서사무가의 연구에 있어서도 이본 비교는 같고 다름, 수용과 변화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내용서지학의 의도와 서사무가의 이본비교는 그 의도에서 일정 정도 부합한다.

둘째, 기존 연구들이 「할망본풀이」를 다루면서 당신본풀이와의 상관성을 논함에 있어 소홀하였다. 「할망본풀이」가 당신본풀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것은 몇몇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긴 하였으나,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관점이 야기한 문제다.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일반신본풀이는 본토와의 교섭에 따라 본토의 것을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²⁵⁾

그러나 제주도는 토착적이고 자생적인 당신본풀이가 오랜 시간동안 전승되어 온 신화의 고장이다. 본토부의 소재가 유입되어도,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전승양상만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기존의 토착적 소재들과 본토부 소재가 상호 교섭 과정을 겪고, 점차 독자적인 일반신본풀이의 형태가 창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할망본풀이」의 경우, 본토부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것을 찾기 어렵다. 때문에 당신본풀이와의 상관성으로부터 형성의 줄가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제주도만의 독자성만을 피력하는 것으로 「할망본풀이」와 산육신 체계를 논의할 수는 없다. 삼신 신앙은 우리나라 전역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본토부의 「

23) 허남춘,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연구」, 『탐라문화』 제44호, 탐라문화연구소, 2013, 63쪽.

24) 國文學新講編纂委員會, 『國文學新講』, 새문사, 2004, 23쪽.

25)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65~67쪽 ;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19~20쪽 ; 장주근 외, 『한국민속학개설』, 학연사, 1985, 378~379쪽.

제석본풀이』와 『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삼신의 속성을 비교하고, 『제석본풀이』가 제주도로 유입, 변용된 원인을 여주인공을 특성과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의 관련 선상 안에서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할망본풀이』를 문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며, 연구 소재가 몇 가지로 압축된 경향이 있었다. 또한 국문학적 접근과 민속학적 접근의 잣대로 양분되어 『할망본풀이』가 지닌 다양한 의의가 협소하게 정의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자에 지적된 한계는 이본 비교의 대상을 최근의 것까지로 확장하고, 『할망본풀이』와 관련 당신본풀이를 두루 조명하는 것으로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본풀이 중심의 연구가 지니는 고질적인 단점에 해당한다. 본풀이 중심의 연구는 실제의 의례, 민속신앙과 분리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기 마련이다. 조금이나마 연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총체적으로 『할망본풀이』의 의의를 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고찰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 양상을 살피고 본풀이와 민속의 관계를 조명하는 연행적·민속학적 접근방식을 필요에 따라 접목하고자 한다. ‘맞이-놀이-풀이’로 진행되는 제주도 굿의 원리에 따라, 서사무가와 놀이 의례를 연계하여 살피는 것은 연행적 접근방식에 속한다. 또한 산육신의 신앙 형태가 실제의 민속과 신앙민의 의식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은 민속학적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 그리고 신앙 체계는 이질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역동적인 영향관계 안에서 교섭하였다. 그러므로 통섭적인 고찰을 통해서 진정한 실체를 가늠할 수 있다. 본풀이와 의례, 본풀이와 민속 역시 그러하다. 『할망본풀이』와 제주도 산육신 체계 전반에 나타나는 특성 또한 반드시 이러한 관점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한다.

4. 연구범위

본고는 「할망본풀이」의 채록본들을 이본으로 상정하고, 이것들이 지닌 상이한 편차가 「할망본풀이」의 형성 원리를 밝힐 중요한 단서임을 전제하였다. 그러므로 이본 비교의 대상들이 일차적인 연구의 범위라 할 수 있다. 검토 대상의 범주는 「할망본풀이」를 제주어로 전사하여 문헌화 한 것들이다.

[표 1] 「할망본풀이」 이본 비교 목록

구분	본풀이명	구연자	수록 문헌	채록 연도	채록자
㉠	할망본풀이	안사인	무속자료사전	-	현용준
㉡	멩진국 할망본	김매옥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1961	진성기
	저승 할망본				
㉢	삼성할망 본풀이	진부옥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자료집	1997	문무병
㉣	삼승할망본풀이	이정자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1999	장주근
㉤	멩진국할마님본	이용옥	이용옥 심방 본풀이	2008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동이용궁할망본				
㉥	멩진국 할마님본	양창보	양창보 심방 본풀이	2010	허남춘 외
㉦	인간불도할마님본	고순안	고순안 심방 본풀이	2011	허남춘 외
	동이용궁할마님본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본들이 있다. 먼저, 『할망본』이라 명명되었음에도 실상은 『마누라본풀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이다.²⁶⁾ 「마누라본풀이」는 삼성할망과 마마신의 대결담을 주요 서사축으로 한다. 따라서 삼성할망의 내력과 좌정담이 나타나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은 문창헌(文彰憲)이 필사(筆寫)하였다고 알려진 『풍속무음(風俗巫音)』에 채록된 「구할망본」과 「삼승할망본」이다. 이 문헌은 가장 오래된 무가 교본이라

26)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131~136쪽, 141~146쪽.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현용준은 『풍속무음』에서 무가의 구연자와 필사자의 내력을 추리할 수 없는 정황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명확한 채록 시기와 연창자 모두를 알 수 없어, 이본 비교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문헌에는 「할망본풀이」와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의 특징을 도출하는 데 요긴한 대목들이 존재한다. 비교의 대상은 아니나, 그 특성을 밝히는 데 근거가 되는 요소들은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 제시하겠다.

「할망본풀이」와 당신본풀이 양자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작업은 (1) 직능의 동일성, (2) 보편성을 준거로 한다. (1)을 대입할 경우 물할망, 불도할망, 서문하르방, 일렛당신 등은 주된 직능이 기자(祈子)와 산육(產育)에 있는 당신(堂神)들이다.²⁷⁾ 현대 일렛당신을 제외한 나머지 신들의 분포는 동광양, 하도, 와산, 용강, 함덕, 김녕 등 일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일렛당신의 경우는 전도적인 분포를 보인다.²⁸⁾ 또한 함덕, 수산, 고성처럼 한 마을의 면적이 넓은 경우, 마을 안에 일렛당의 수가 5~7개에 이르렀었다. 따라서 이들 중, 당신이자 산육신으로서 가장 보편적인 신격(神格)은 일렛당신이다. 그러므로 여러 산육신들 중, 일렛당신을 대표격으로 설정하여 그 본풀이를 「할망본풀이」와 견주고자 한다.

또한 「할망본풀이」가 연창되는 <불도제>의 굿놀이와, 토산리 「일렛당본풀이」가 연창되는 <아기놀림>을 중심으로 각 신앙체계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신앙민이 삼성할망과 일렛당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이는 제주도 전 지역의 일생의례 관련 조사를 엮어낸 『한국인의 일생의례 : 제주도』 편을 참고할 것이다.

나아가 산육신 신앙체계의 특성을 명료히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살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제석본풀이」의 유입과 변용, ‘서천꽃밭’과 ‘생불꽃’ 등의 신화적 사유가 그것이다. 「제석본풀이」의 전 지역 이본과 분류, 특성 등은 서대석, 홍태한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27) 문무병은 마을의 당신(堂神)이면서, 산육·기자신의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신들을 일렛중저, 물할망, 서문하르방, 불도할망, 서당국서로 분류한 바 있다.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187~190쪽. 일렛중저와 서당국서는 주된 직능이 무엇이나에 따라 달리 불리는 이름이나, 거의 대부분 같은 신격을 의미한다. 물할망의 산육신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의를 가지지는 않으나, 신격의 유래를 근거로 할 때 당신으로서의 산육신에 완벽히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28) 일렛당의 분포는 거의 전도적이고 그 수는 조사된 것만도 90여개소나 된다. 현용준, 『제주도 마을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34쪽.

총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의 전반이 하나의 미학적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최종 귀결점이다. 그러므로 위의 연구결과를 합치할 수 있는 원리의 구명과, 이것들의 미학적 가치를 증명하는 작업까지가 연구의 범주가 될 것이다.

Ⅱ. 제주도 산육신의 좌정(坐定)과 「할망본풀이」의 형성 원리

1. 「할망본풀이」 형성의 근거

1) 「할망본풀이」 채록본의 비교·검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고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할망본풀이」의 형성에 당산본풀이가 미친 영향을 조명하는 데 있다. 서사무가의 변이 유형은 서사무가의 통시적 전개를 점검할 수 있는 유력한 척도이다.²⁹⁾

따라서 「할망본풀이」의 각 채록본들이 나타내는 차이는 곧 통시적 전환을 반영한 역사의 흔적이며, 이는 「할망본풀이」의 형성에 관여한 지속적인 변화들을 살피는 계기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채록된 「할망본풀이」 각 편에 대한 비교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본비교 대상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본 비교의 대상 가운데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각 편들이 있다. 먼저, 「할망본풀이」에서 두 여신의 좌정을 결정하는 투쟁담이 다소 다르게 변형되어 있는 경우이다. ㉠의 경우 인대감이 동개남 미양사의 대사중과 함께 무쇠뒤주를 발견한다. 그 속에서 나타난 동해용왕아기씨가 출생삼구월 초아흐렛날 태어나 생년월일이 불길하므로, 동해용왕아기씨는 저승을 관장하게 된다. 따라서 ㉠에서는 두

29) 김현선, 「한국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 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373쪽. 허남춘도 신화 속에 내재된 역사성을 근거로 통시적 접근이 가능함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 바 있다. “신화 속에는 고대사에서부터 중세사, 근대사가 망라된다. 그래서 신화 속에는 고대적 사유에서부터 근대적 사유까지 통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2011, 27쪽.

아기씨의 투쟁담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지나친 본풀이의 간략화인 셈이다.

㉞은 두 아기씨가 한 날 한시에 태어난다. 또한 경쟁 시합의 제안이 옥황상제가 아닌 신직 경쟁자들 사이에서 스스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 성격이 「천지왕본풀이」의 꽃 가꾸기 경쟁과 유사하여 특이하다. 또한 온전한 해산 능력의 유무(有無)로 산육신(產育神)으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대조담도 생략되어 있다. 일반적인 「할망본풀이」가 보이는 투쟁담의 구조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다. 이는 고순안 심방이 연창하는 본풀이가 오로지 암기(暗記)만을 통해 익힌 것들이었는데, 기억력의 감퇴 때문에 일정 대목이 생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혹은 애초에 명진국아기씨와 동해용왕아기씨가 아이의 해산능력에 관한 한, 차별성이 없었던 고형(古形)을 간직한 것으로 볼 단서가 된다.

다른 하나는 「할망본풀이」의 서사 구조가 생략되기보다 추가된 경우이다. ㉟의 경우, 꽃 가꾸기 경쟁에서 패(敗)한 동해용왕아기씨가 구삼싱할망으로 좌정한다. 그러나 앙심(惝心)을 품고 인간 생명 잉태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서천꽃밭에 수레악심멸망꽃을 퍼뜨린다. 자신이 포태를 준 아이들이 이로 인해 흉험(凶險)을 당하자 삼싱할망이 이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꽃감관이 서천꽃밭을 지키도록 한다는 서사 단락이 추가된다.

이는 본풀이의 뒷부분에 서사구조가 덧붙여 확장된 양상이다. 그러므로 타 채록본과 그 성격이 다를뿐더러, ㉠과 ㉡의 서사구조가 축소된 것과는 상반된다. 또한 채록본 전반에서 동해용왕아기씨와 명진국아기씨의 출생내력과 자질을 묘사하는 단락들이 매우 상이하다.

이 외에는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서사적 전개에 큰 틀이 유사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할망본풀이」 채록본들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시 가능한 핵심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 ① 용왕의 딸로 태어난 동해용왕아기씨가 부모에게 불효한 죄로 무쇠석함에 갇혀 바다에 띄워 버려진다.
- ② 무쇠석함이 바다를 오랜 시간 동안 떠돌다 인세에 당도하여 임박사에게 발견된다.
- ③ 인간세상에 생불왕(產育神)이 없으므로 동해용왕아기씨가 생불왕으로 들어

서 인간의 포태와 출산을 관장하게 된다.

- ④ 동해용왕아기씨가 포태를 준 생명이 낙태되거나, 산달을 넘기도록 출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 ⑤ 임박사가 이를 보다 못하여 옥황상제에게 적합한 생불왕을 내려달라 청원한다.
- ⑥ 옥황상제가 생불왕에 들어서기 가장 적합한 인물로 명진국아기씨를 간택하고, 명진국아기씨는 인세에 내려서 동해용왕아기씨가 벌인 일을 수습한다.
- ⑦ 인간 세상에 생불왕(產育神)이 들어 되었으니,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이를 해결하고자 옥황상제가 개입한다.
- ⑧ 옥황상제는 두 아기씨에게 꽃씨를 각각 나누어 주며, 이것을 키워 꽃이 번성해가는 모양을 보고 인간 생불신(產育神)을 결정토록 하겠다는 명을 내린다.
- ⑨ 동해용왕아기씨의 꽃은 뿌리는 사만오천육백가지로 뺏고 가지와 꽃은 하나 밖에 피지 않았으나, 명진국아기씨의 꽃은 뿌리는 하나이고 그 가지와 꽃이 사만오천육백가지로 번성한다.
- ⑩ 경합의 결과에 따라 옥황상제가 명진국아기씨는 인간 생불왕(삼성할망)으로, 동해용왕아기씨는 저승의 구삼성으로 좌정할 것을 명한다.
- ⑪ 인간 생불왕의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분통함에 동해용왕아기씨가 앞으로 명진국아기씨가 생불왕으로 들어서 포태를 준 아이들에게 온갖 흉험(凶險)과 질병을 주어, 저승으로 데려가겠노라 겁박한다.
- ⑫ 명진국아기씨가 동해용왕아기씨를 달래어, 자신이 인간들에게 대접받을 때 함께 인정을 걸어 얻어먹을 수 있도록 범지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다. 이에 온전히 삼성할망과 구삼성할망으로 좌정하게 된다.

「할망본풀이」 속에서 신직(神職)을 놓고 벌어진 갈등을 옥황상제는 ‘꽃 가꾸기 경쟁’을 통하여 일단락 소거시킨다. 때문에 ‘꽃 가꾸기 경쟁은’ 「할망본풀이」에서 두 아기씨의 자질적 대립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치이자, 투쟁담의 핵심이 된다.³⁰⁾ 이 화소는 「할망본풀이」에서 동해용궁따님아기를 승복하게 하는 가시적이며 합리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30) 이 논문에서 ‘자질’은 사전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타고난 성품이나 소질’의 뜻을 가진다. 그러므로 자질적 대립은 「할망본풀이」에서 동해용왕아기씨와 명진국아기씨의 본성이 선과 악으로 대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아기씨의 자질적 대립은 ‘인간 생명의 건강한 해산법(解産法)을 알고 있는가.’에서 이미 판가름 나있다. 진정한 산육신(産育神)은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탄생시키고 보존할 수 있어야 하였다. 김현선 역시 이러한 자질적 대립이 「할망본풀이」의 결정적 대립소라 언급하였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자료들은 「동해용왕아기씨본풀이」, 「명진국할마님본풀이」로 지칭되어 각기 개별신에 대한 의례로 분리되거나, 「할망본풀이」로 지칭되며 두 본풀이가 결합된 완성본으로 연창되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해당 의문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각 채록본들의 같고 다름에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내용보다, 각 이본의 상이한 편차가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선천적 배경의 혼재와 대립

「할망본풀이」의 채록본들을 살핀 결과, ‘투쟁담(꽃 가꾸기 경쟁)’과 ‘온전한 인간 해산’이라는 두 서사축이 제거된 이본들이 발견되었다. 물론 주요 서사축의 생략으로 온전치 못한 서사 전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분화양상에 초점을 맞추면 「할망본풀이」의 통념적인 서사축에만 주목하여 간과하였던 요소들을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마련된다.

그러므로 채록본들에 나타나는 서사 전개의 상이함을 고찰하는 작업이 필히 선행되어야만, 본풀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줄거리들을 가려낼 수 있다. 채록본들에서 투쟁담을 제외하고 상이함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두 여신의 선천적 배경인 출생내력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다. 이를 기준삼아 각 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할망본풀이」에 나타난 두 여신의 출생내력 비교

구 분	출생내력	
		동해용왕아기씨

31) 김현선(2005), 앞의 글, 195쪽.

구 분	출생내력	
	동해용왕아기씨	명진국아기씨
㉠	신구월 초아흐렛날 “동이용궁 아방국”과 “서이용궁 어멍국” 사이에서 태어남	병인년 병인월 병인일 병인시 삼진 정월 초사흘날 “아방국 서카여리” “어멍국 서카무니” 사이에서 명진국아기씨가 솟아남
㉡	“동해용왕 동경국”의 아버지 밑에서 구월 구일에 태어남	병오년 정월 초사흘날 “석해대왕(釋迦大王)”과 “북해송상 석해산(釋迦山)” 사이에서 태어남
㉢	“동해용궁 황정승의 딸아기”로 구월 초아흐렛날 태어남	아버지는 하늘, 어머니는 땅으로 병인월 병인일 병인시 삼진정월 초사흘날 탄생함
㉣	“동이용궁 말젓뜰아기”로 태어남	“명전대왕 뜰아기”로 태어남, 정월 초사흘날 “노각성즈부줄”로 인간 세상에 내려옴
㉤	“동ियो왕 말젓뜰아기”로 태어남	옥황(玉皇)의 “명전대왕 뜰아기”로 탄생함, 정월 초사흘날 인세의 이구산으로 내려섬
㉥	“동해요왕 황정승”, “서해요왕 매하부인” 사이에서 구월 구일날 태어남	상정월 초사흘 날에 “인도국 하의 명진국”에서 “무혜유화(無爲而化)”로 탄생함
㉦	“요왕황저국 말젓뜰아기”로 태어남	출생 내력 없음, 갑인년 정월 초사흘날 인간세상에 내려섬

동해용왕아기씨의 경우 동해용왕의 딸로서 출생 신분이 일괄적인 편이다. ㉦은 단순히 “요왕황저국”이라는 출생 배경을 밝히고 있으나, 본풀이를 연창한 심방이 그 명칭을 「동이용궁할마님본」이라 하였으므로 그 계보가 같다. 반면에 명진국아기씨는 출생 내력이 일정하지 않다. 석가여래와 석가모니, 석가대왕과 석가산의 딸로 출생하는 ㉠, ㉡과 같은 이본이 존재하거나, 명전대왕의 딸로 출생하는 등 출생내력이 각 이본마다 불일치하였다.

현용준은 명진국(명진국)의 의미를 삼성할망의 신격적 특성과 제주도 방언의 음운현상으로 해석하였다. 먼저 삼성할망은 아이를 살피 15세가 될 때까지 그 명

을 온전히 보전해주는 신격이다. 또한 방언의 음운현상에 의해 해당 단어를 분석하면, ‘멩긴/멩진’은 명긴(命長) 즉, 명장국(命長國)의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뒤에 붙는 접미사인 ‘-국’에 대해 ‘멩진국’, ‘명전대왕’ 등과 같이 명진이 수식하는 대상이 혼재된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라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신의 이름 뒤에 붙는 접미사인지 그 출처를 알 수 없어 의문이라 하였다.³²⁾

㉠의 “멩진국”은 아방국, 어멍국, 명진국 등으로 신격의 명칭이 대구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의 이름 뒤에 붙는 접미사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러나 ㉡과 ㉢은 명진이라는 단어가 신적 존재인 대왕과 합성하여 나타났으나, 그것이 부신(父神)의 이름인지, 국명(國名)인지 명확치 않다.

㉣에서는 ‘인도국에 부속(附屬)된 멩진국’이라 그 근거를 대고 있으니, 국명(國名)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과 같은 출생내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에서 나타난 ‘인도국’은 지금의 인도(印度, 아시아 남부의 인도 반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멩진국 할마님은, 인도국 하의 멩진국에서~. 무혜유화(無爲而化)로 탄생(誕生)허신, 상정월 초사흘 날은 생일(生日)입네다. 일곱 술 나던 혜에, 옥황상제의 분부를 반양, 옥황테레 도올르니 “너는 인간에 도느령근, [요령] 자손번성을 시겨주라.” 영 허난, [말] “어리고 미혹한 아기가 무슨 철부질헌 아이덜이 철을 알양, [소리] 자손 번성 시깁네까.” 영 허난 “뉘 분부라 거역허곡, 뉘 멩이랑 지체헐소냐. 어서 내려사라.” 영 허니 할마님은 옥황으로부터, 지국성에 도느령근, 방방곡곡 육도산납을 마련허영, 생불 주저, (...이하생략...)³³⁾

인용 단락은 ㉣에서 연창되는 멩진국아기씨의 출생담이다. 여기에서는 멩진국아기씨가 부모의 힘을 빌리지 않고, ‘무혜유화(無爲而化)³⁴⁾ 즉, 독자적으로 탄생한 배경이 언급되고 있다. ㉠의 채록본은 부모를 석가여래와 석가모니로

32)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51~52쪽.

33)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편, 『양장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2010, 77쪽.

34) 해당 단어는, 양장보 심방의 본풀이 전사에 사용된 것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본디 덕(德)을 지닌 군자(君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저절로 교화되어 다스려진다는 의미로, 꾸밈없는 성인(聖人)의 자세를 강조하는 노자(老子)의 말이다. 그러나 채록본에서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단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양부모의 결연 없이 스스로 탄생한 멩진국 아기씨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밝히고 있으나, 심방은 명진국아기씨가 “숫아났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㉔의 채록본과도 상통한다. 명진국아기씨의 아버지가 하늘, 어머니가 땅이라고 밝히는 점에서 건국서사시의 영웅들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런데 ㉔을 연창한 진부옥 심방은 다음과 같이 명진국아기씨의 출생내력을 옥황상제의 딸이라 달리 설명하고 있다.

할마님은 뱀인년 뱀인월 뱀인시에 즈순 탐승하여
 일곱살 뉘난 무남 알로 느려
 아방 몸에 흰피 백일 어멍 몸 아호열들 가망 চে왕,
 포태환승시켜주던 영급 조은 할마님이웨다.
 하루 만명 포태주고, 하루 만명 내와주는 할마님
 옥황전 대왕 딱님애기 올습네다.³⁵⁾

위는 진부옥 심방의 「마누라본풀이」 연창본이다. 이 심방은 제주도의 여무(女巫) 중, 최고 선배 심방이다. 그런데도 동일 인물이 연창한 「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에서 명진국아기씨의 내력이 다르다. 이처럼 출생이 각 이본마다 다르고, 동일 심방이 연창하는 다른 본풀이에서도 불명확하니 그 형성 시기가 의문이다.

반면에, 안정적 전승을 보이는 동해용왕아기씨의 출생 내력은 제주도의 토착적인 당신본풀이에서 모티브를 수용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불효한 죄로 부모에 의하여 무쇠철갑에 담겨 바다에 버려지고 새로운 세상에 가서 신으로 좌정한다는 내용은 당신본풀이에서 흔히 보던 것이다.³⁶⁾

「할망본풀이」의 기존연구들은 주로 명진국아기씨의 내력담에 내포된 산육신적 면모들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본풀이에 나타난 승패의 결과는 신직과 연관된 상징성을 틀림없이 지닌다. 그러나 명진국아기씨의 출생내력이 혼재되어 전승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둔 연구는 없었다.

신화에서 출생내력, 즉 선천적 배경은 신(神)의 근본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의 출자는 해당 신을 섬기는 신앙민의 경외의 대상과도 일치하였다. 고대 신화

35)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88쪽.

36) 강정식(2003), 앞의 글, 30쪽.

의 영웅들은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왔다. 특히 단군신화, 해모수신화, 주몽신화 등으로 대표되는 건국신화는 건국주의 천계(天界) 출자를 밝히고 있다. 이는 고대의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집단이 자아의식을 확대한 증거이며, 자신들이 천신(天神)의 후손임을 자부하는 자기중심주의의 표상이다.³⁷⁾

그런데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에 나타나는 신들은 바다를 통해 입도(入道)하거나, 땅에서 솟아난다. 이것이 제주도의 토착적 신화가 지닌 보편성이자, 타 지역과 구분되는 독자성이었다. 고대 신화에서 본토부의 신들이 대부분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는 그 양상이 달랐다.

제주도 신(神)들의 체계를 보자. 토착신(土着神)을 압도(壓倒)하고 강림신(降臨神)과 외래신(外來神)이 다른 신보다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제주도 선주민의 신앙생활 이래 그 지역사회에의 정치·경제사적 배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이처럼 새로운 체제 혹은 문물이 들어와 기존의 질서가 교체되는 사회상이 제주도 신의 교체 속에도 담겨 있다. 신화에서 나타나는 신들의 위계질서와 승패의 전위(轉位)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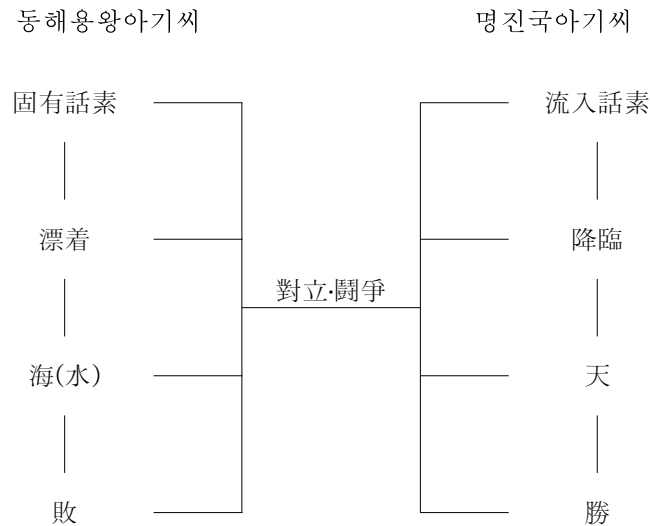
동해용왕아기씨는 부모로부터 버려져 바다를 통해 입도하였다. 제주도의 산이나 땅을 출자로 삼지 않고 바다를 통해 유입된 신격이니 <외래신>이며, 입도의 형태로 보아 <표착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출생내력에서 제주도의 토착적이고 자생적인 당신본풀이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아(棄兒)-상주표착(箱舟漂着)’의 화소를 차용하였다. 따라서 동해용왕아기씨는 <외래신>, <표착신(漂着神)>, <고유신격>의 특성을 가진다.

반면에 명진국아기씨는 하늘 또는 명진국으로부터 출자된 신격이다. 출생지가 제주도가 아닌 외부이므로 <외래신>이 된다. 또 근본이 옥황에 있으므로 신격 자체가 천신(天神)의 매개(媒介)를 전제하는 셈이다. 게다가 출생내력에 옥황(玉皇)과 석가(釋迦)가 혼재되어 나타나므로 천신사상과 불교적 색채가 짙다. 이 두 요소는 모두 외지(外地)에서 유입된 사상이다. 결국 명진국아기씨는 <외래신>, <강림신(降臨神)>, 그리고 제주도의 토착적 신격이 형성된 이후에 전래된 <유입신격>의 특성을 갖추었다.

37) 조동일, 『한국문화통사』1, 지식산업사, 2012, 61쪽 참조.

38) 진성기, 『제주도무속논고 - 남국의 무속』, 민속원, 2003, 12쪽.

「할망본풀이」에서는 동해용왕아기씨에게 도전해서 삼성할망의 자리를 빼앗은 적대자를 옥황상제가 보낸 석가여래 혹은 명전대왕의 딸이라고 하였다.³⁹⁾ 그리고 투쟁에서 결국 천계 출자의 여신이 승리하여, 산육신인 삼성할망이 되었다. 이것을 종합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할망본풀이」에 나타난 두 여신의 특성 대비

[그림 1]을 바탕으로 「할망본풀이」의 두 여신은 선천적 배경 즉, 출생내력에서 완전한 이분구조를 형성한다. 그리고 투쟁의 결과가 두 여신의 출생내력의 대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할망본풀이」는 토착적이고 독자적인 여성 영웅이 하늘에서 출자(出自)하는 여성 영웅에게 산육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이야기이며, <해신계>와 <천신계>, <표착신>과 <강림신>, <고유신격>과 <유입신격> 간의 대결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상정할 수 있다.⁴⁰⁾

39)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65쪽.

40) 레비스트로스(C. Lévi-Strauss)는 신화의 보편성이 인간의 '이원대립적'인 정신구조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세계의 많은 신화에서 양과 음, 하늘과 땅, 자연과 문화, 남성과 여성, 육식과 초식 등과 같은 이원적 대립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보편성이야말로 신화의 본질, 나아가서 인간정신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논리가 될 수 있다.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도서출판 월인, 2005, 59쪽.

이를 통해 추론할 때, 「할망본풀이」는 다음과 같은 신화적 사고의 변천을 담는다. 동해용왕아기씨가 먼저 삼신(생불신)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나 빼앗긴 것, 출생내력이 바다(물)에 근본을 두고 토속적·자생적인 당신본풀이의 화소를 차용하고 있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디 제주도의 ‘삼신’은 땅과 물에 연관된 ‘구삼성할망’이었다. 그런데 후에 천상에 근거를 둔 명진국아기씨가 영향력 다툼에서 승리하여 삼성할망으로 바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 자질적 특성의 부각과 대립

「할망본풀이」의 두 여신은 선천적 배경에서부터 신격의 특성이 대비를 이룬다. 동해용왕아기씨가 지니는 표착신의 면모는 토착적 신화소를 반영하고 있음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명진국아기씨의 경우, 이와는 상반되는 천강(天降)화소의 변이형이다. 특히 명진국 아기씨의 탄생담에는 불교의 신성성이 결합되고 있어, 신불(神佛)이 결합된 중세서사시의 면모를 갖춘 것이다.

따라서 「할망본풀이」에서 나타나는 명진국아기씨의 일대기는 고대와 중세의 이념의 적절히 배합된 채색일 가능성이 높으며, 동해용왕아기씨의 일대기보다도 후대(後代)에 이루어진 변이(變異)임이 짐작 가능하다.⁴¹⁾ ㉔과 같은 이본 역시, 천신계·부계(父系) 출자의 속성을 지닌 신(神)이 토착적 탄생담을 지닌 신보다 우월하다는 신화적 인식이 덧입혀져 변이된 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격 특성의 대비와 함께 두 여신의 자질적 대립 양상이 본풀이 상에 부각되며, 새로운 산육신(産育神)의 도래와 좌정에 정당성을 불어넣는 장치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아방국은 서카여리 어멍국은 서카무니롭서 인간에 맹진국뜨님아기가 솟아나,
탄생일을 보건데 뽕인년 뽕인월 뽕인일 뽕인시 삼진 정월 초사흘날 솟아나 부모
에 효심하고 일가방담 화목하고 지픈 물에 드리 노아 월천 공덕하고 혼착 손엔
번성꽃 혼착 손엔 환생꽃 거느려, 이 아기씨 생불왕으로 들여세우기 어찌흡네

41) 허남춘(2011), 앞의 글, 126쪽.

㉠의 채록본에서는 명진국아기씨가 효가 지극할뿐더러 공덕(功德)을 쌓았으며, 그 일가친척이 화목하다는 대목이 발견된다. 동해용왕아기씨의 불효죄와 대비시켜 명진국아기씨의 도덕적 우월성이 드러난다. 반면에 다른 채록본에서는 목적은 같되, 방법을 달리한 다음과 같은 대목도 있다.

(1) 이 아기 행실이 나쁜, 혼술 적의 쫓고고리도 물어 툇다불고, 손콥으로도 툇다불고, 두설 난 호꿈 옥아가난, 아버지 쉬엄도 다 뽑아불고, 삼각쉬엄도 거실루고, 식설 나가난 하르바님 할마님 돌도 데껴불고 나쁜짓을 많이 해연, 다숫설은 나난 명석해영 날래 널영 나두민 것도 막 허대겨불고, 똥도 역부러 싸 불고, 오줌도 싸물고, 으숫설은 웨여가난 밧디 가민 그자 종즈(種子)를 우막아불고, 꽃이파리도 타불고, 돌로 모사불곡, 하도 나쁜짓을 많이 행 일곱설은 나난, 동네고, 일가고, 형제간이고 전부 불목을 지완 (...이하 생략...)⁴³⁾

(2) 동해용궁 말젯말아기
 혼살쩍에 어머니م 젓가심 두두린 죄,
 두 살쩍에 아버지 삼각수 훤은 죄,
 시살쩍은 나난 널은 날래 허데긴 죄,
 니살쩍은 당허니 뼈헌 입성 범을린 죄,
 다섯 살은 나난 델차종자 우 막은 죄,⁴⁴⁾

(3) 쇠 술에는, 업게 등뎡이 업언 텡겸시민 등뎡이 막 두드려부는 췌도 마련허곡, 너 술적인 —, 걸음발 네영 마당에 나가민, 옛날은 곡실덜 몰루젠 해영—, 명석 폐왕, 곡식 널영 날래 널면, 너른 날래 허터븐 췌도 마련허곡~, 다섯 술 나던 해는, 집안 우영—에, 농사지영근, 한창 커가민, 동해용궁 뜨님아가기가 들영, 똬치 종자덜 우 막아불고, 농사도 그르치게 해여불곡, 으섯 술 나난 [말] 동네 촌장, 말도 아니 들영, 하도 즈들라불고, [소리] 일곱 술 나난

4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진』, 도서출판 각, 2007, 99쪽.

43) 문무병(1998), 앞의 책, 176쪽.

44) 장주근(2001), 앞의 책, 82~83쪽.

[말] 일가덜 뵈이엿 굴으민 집에 오랑 소도리 혜영, 싸움 부져불곡, [소리] 으덥 술에는 형제간이, 불목을 시긴 췌를 마련허난, [말] 아흠 술이 나든 헤에 췌가 득심허니, [소리] “귀양정배를 마련허라.” 영 허영, (...이하 생략 ...)⁴⁵⁾

위의 예문은 각각 ㉔, ㉕, ㉖의 채록본에 해당한다. 여기서 동해용왕아기씨는 죄목이 추가되거나, 유모, 가족, 웃어른,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효죄를 저지르는 인물이다. 꽃을 꺾고, 곡식 종자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등의 ‘생산방해’의 죄목도 두드러진다. 이는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놀부의 악행과도 매우 닮았다. 결국 동해용왕아기씨는 생활 범주 전반에 폐를 끼치고, 생산을 방해하였으니 인간의 탄생을 관장하는 ‘삼신’으로서는 자격 미달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흔히 제주도의 일반신 본풀이와 당신본풀이에서 불효죄로 인한 추방의 대목에서 ‘한 살 적엔 어머니의 젖가슴을 두드린 죄, 두 살적엔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긴 죄’라는 관용구로 그 죄목을 설명한다. ‘부모에 대한 불효’가 추방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불효죄는 제주의 당신(堂神)이나 일반신들에게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신격(神格)으로 좌정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기아(棄兒)를 전제하는 영웅성의 장치가 제주도의 토착적인 본풀이에서는 ‘불효’였다.

그런데 제주의 토착적 신화소가 「할망본풀이」에서는 산육신(產育神)으로서의 도덕률(道德律)을 평가름 하는 잣대가 되었다. ‘불효’는 더 이상 영웅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었다. 가장 통상적이었던 신화소가 거부되고, 그에 상반되는 자질을 지닌 여신이 산육신이 되는 것이 옳다 여겨졌다. 「할망본풀이」에서는 불효보다 악행을 투쟁의 패배 원인으로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세이념의 접촉과 더불어 신화에 보다 내적이고 윤리적인 해석이 부여된 결과이다.

어떤 년이 나가 포태준 나 즈순을 해산을 시겼느냐.
 용궁할망은 구진 할망이난, 욕심도 차고 독헌 할망이주마는
 멩진국 할마님은 므음이 할마님이 뉘젠 허난 순해 노난
 대답홀 말이 엇어집 데다.⁴⁶⁾

45)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편(2010), 앞의 책, 79~80쪽.

46) 문무병(1998), 앞의 책, 183쪽.

윤리적인 가르침은 이처럼 본풀이 속에서 악인은 반드시 징치(懲治)되어야 한다는 법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⁴⁷⁾ 때문에 토착적인 성격을 지녔던 산육신(産育神)은 중세와 근대의 이념의 홍수 속에 점점 패배의 구체적 요건을 갖추어 갔다. 선악(善惡), 시비(是非), 효열(孝烈)을 강조하는 중세 신화의 논리는 동해용왕아기씨의 패배(敗北)를 더욱 당위적으로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악행으로 인해 부모에게 버려진 여신은 인간 세상에 분란을 일으키고 투쟁을 가져오는 대상이었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소별왕이 형을 속이고 이승을 차지한다. 도덕에 어긋난 속임수가 확실한데, 그것이 패배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이 법칙이 「할망본풀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윤리관과 도덕률에 위배(違背)된 부도덕한 신을 승자로 만들기에는, 너무도 확고한 중세적 이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때문에 「할망본풀이」에서 발견되는 ‘꽃 피우기 경쟁’의 특이성은 신화적 사고의 통시적 변화가 야기한 결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창세가」, 「천지왕본풀이」 등에 나타난 ‘꽃 피우기 경쟁’에서 투쟁의 핵심은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은 신에게 경쟁자가 생기고, 부정을 저지른 대상이 인세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미륵이 창도한 세상을 후래자(後來者)인 석가가 차지하려고 하거나, 대별왕이 맡게 될 이승을 동생인 소별왕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할망본풀이」의 갈등을 이해하는 적합한 사례이다.⁴⁸⁾ 그러나 「할망본풀이」에서는 처음 인세(人世)에 당도(當到)한 신이 부정적인 대상으로 묘사되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최근에 이르러 채록되었으나, 명진국아기씨에게 신이한 능력을 부여하는 다음과 같은 이본들이 존재한다.

- (1) 이 할마님이 일곱술 나난 앓아 천리 보고, 만릴 보고 하늘 알을 곱영 보멍
 혼손으론 단수 육갑 또 혼손으론 오행육갑을 짚으난 열다섯 시오세가 되난
 옥황상제님은 이녀 몸받은 책실도서를 내리왕 보내멍 “석해산 맹진국 대감
 님집이 강 옥황이서 맹진국 애길 불림수탱 호영 드랑오라.” 호였수다.⁴⁹⁾

47)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의 원시·고대·중세 서사시적 특징과 변모」, 『탐라문화』 3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175쪽.

48) 김현선(2005), 앞의 글, 198쪽.

49) 진성기(2002), 앞의 책, 136~137쪽.

(2) 공씨 방씨 서씨여리, 할마님 공씨 할마님은 ~, 공중에 떠 댕긴다 허여 공씨 할마님이고 방씨 할마님은 방방곡곡을 댕긴다 하여 방씨 할마님, 공씨 방씨 서씨여리 할마님은~, 서준낭~, 서준공서고 부처님을, 위로하여 즈순덜다~, 허는 뜻으로 허영, 공씨 방씨 할마님은, 원래 할마님은 허나~, (...중략...) 가호가호(家戶家戶) 다 세영 댕기젠 허난, 하루 앓앙 여러명 포태도 못 시기곡, 해산도 못 시검직 허난, 축지법을 마련허져 하루 천명 포태를 주저, 하루 만명 해산을 시기젠 해연~(...이하 생략...)50)

(1)과 (2)는 [표 1]의 채록본 중, ㉠과 ㉡에 해당한다. 동해용왕아기씨는 고대·중세를 지나며 점점 산육신(産育神)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확고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 그러나 명진국아기씨는 일곱 살에 천지(天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헤아릴 수 있었으며, 점사(占辭)에도 능숙하였다. 공중에 떠다니는 신이한 능력을 가진 여신이, 축지법(縮地法)을 사용하여 인간 세상 곳곳에 인간 생명을 불어넣었다.

특히 ㉡을 연창한 이정자 심방은 ㉠의 이용옥 심방과 동일 인물이다. 그런데도 그 내용이 매우 달라져 있어 놀랍다.51) 연창의 시기가 10년여의 간극을 두고 채록된 것을 감안할 때, 먼저 채록된 ㉠의 내용에서 찾을 수 없었던 (2)과 같은 내용이 후일 「할망본풀이」에 삽입된 것은 간과할 일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진부옥 심방 본풀이에서 명진국아기씨의 내력이 불일치 한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사실은 「할망본풀이」의 전승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있으며, 명진국아기씨 개별담의 불명확한 전승을 방증(傍證)하는 예이다.52)

또한 「할망본풀이」의 이본 비교를 통하여 상이한 단락들이 서사무가 내에서 두 여신의 선천적·자질적 대립을 부각시키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할망본풀이」의 전승과 형성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고대·중세의 논리

50)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편,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2009, 77~78쪽.

51) ㉠의 경우, 「삼승할망본풀이」라는 하나의 서사구조에 두 여신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다. 반대로 동일인물이 연창한 것이지만 ㉡의 경우, 두 여신의 본풀이가 각 개별담으로 채록되었다.

52) 강정식은 「할망본풀이」가 두 개별신 본풀이로 전승되기도 하고 하나로 통합되어 결합형 본풀이로 전승되기도 하는 특성에 착안하여, 일본신본풀이에서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는 유형이 없음을 밝혔다. 나아가 이는 「할망본풀이」가 다른 일반신본풀이와는 달리 아직도 통합형으로 고착되지 못한 상태이며, 그 형성시기가 오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로 보았다.

에 힘입어 유입신격을 당위적인 산육신으로 만들어 갔던 흔적이다. 따라서 「할망본풀이」의 형성 과정과 원리를 이러한 검토 과정을 통해 엿볼 수 있기에 더없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자질의 대립은 갈등의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단순한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할망본풀이」를 끝까지 듣지 않더라도, 투쟁의 승패를 미리 짐작하게 한다. 「할망본풀이」의 이본들은 투쟁담의 생략, 변형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그런데 이본 간의 차이를 더욱 면밀히 들여다보니 투쟁담의 확장이나 축소, 생략을 떠나서 두 여신의 신격적 특성이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방향으로 「할망본풀이」가 변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영웅의 시련을 겪고 살아 돌아와 삼신할머니 노릇을 하는 권능을 발휘 하였으나, 경쟁자에게 그 지위를 빼앗기고 저승으로 밀려난⁵³⁾ 동해용왕아기씨의 근간은 제주도 고유의 토착 신화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효죄를 지은 처녀신으로 변모하더니,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적대자에게 자신의 좌정처를 빼앗겼다. 더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고대·중세 이념의 강요와 침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결국, 모든 논리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육신의 등장으로 신직(神職)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에는 동해용왕아기씨가 산모(產母)의 겨드랑이를 베어 인간 생명을 탄생시키려던 대목이 있다. 인간 생명이 땅으로부터 탄생하거나, 어머니의 몸의 일부로부터 생겨난다는 신화적 사고가 그것이다. 잉태와 출산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증거가 없었던 원시, 고대시대에서 인간의 근간을 찾고자 한 노력의 산물이다. 신화에서 신성한 존재가 태어날 때에 하문(下門)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의 옆구리를 뜯고서 나오는 전례가 있다.⁵⁴⁾ 그러나 과거의 방식이나 신을 출생시킨 방식으로 인간을 탄생시키고자 한 산육신(產育神)은 더 이상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명진국아기씨의 등장은 시대의 논리에 맞는 더 강력한 지배자, 새로운 문명의 도래와도 같았다. 그리고 결국 탄생의 신비로움을 말하던

53) 조동일(1997), 앞의 책, 64쪽.

54) 김현선(2005), 앞의 글, 191쪽.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알영의 탄생이나 석가의 좌협탄생담, 혹은 북유럽 신화에서 태초의 신들이 여신의 겨드랑이 땀으로부터 탄생하였다는 모티프가 존재한다. 어느 쪽이든 신성탄생을 표현하는 상징성을 지닌다.

신화공동체의 사유는 어머니 신의 단계를 넘어, 자궁으로 인간을 탄생시키고 은가위로 태줄을 끊는 합리적인 여신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초적 사유를 담은 산육신(産育神)의 시대는 부정적인 가치를 부여 받으며 퇴색되었고, 고대·중세의 논리에 힘입은 영웅적 여신이 새로운 제주의 산육신(産育神)이 되었다.

2. 「일렛당본풀이」의 변용과 「할망본풀이」의 영성원리

앞서 살핀 결과, 「할망본풀이」에 나타난 동해용왕아기씨의 내력담은 제주도의 토착적인 신화소를 차용하였다. 이는 명진국아기씨의 내력담이 지닌 특성과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서사의 전개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본질적 원인이 이것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할망본풀이」의 형성에는 당신본풀이의 문법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 특정한 신직을 두고 두 신이 경쟁하여 우열을 가르는 것과, 각각 별도의 좌정처를 차지하는 점이 그러하다. 당신본풀이의 특징적인 전승방식인 개별담의 결합을 차용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⁵⁵⁾

그러나 작법(作法)을 논하지 않고서라도 「할망본풀이」와 산육신과 관련된 당신본풀이 사이에서는 신격의 설정에서부터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너무 멀리 나아가서 해답을 찾기보다, 가까운 곳부터 면밀히 보는 것이 때로는 열쇠가 된다. 의문점의 해결을 위하여, 산육신 관련 당신본풀이 역시 「할망본풀이」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채록본들을 살피는 작업을 진행하겠다.

일렛당과 관련된 본풀이는 그 분포만큼이나 다양한 가짓수가 존재한다. 다행히 일렛당계 본풀이는 지역적으로 분화 양상을 계열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계열의 대표본들을 살피는 것으로 대략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렛당 계열은 여타 동일 직능의 당신본풀이와는 달리 가장 보편적인 토착 신앙이므로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살펴야 옳다.

일렛당신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당 신앙으로 ‘서당할망’, ‘서당일렛’, ‘허물할망’으

55) 강정식(2003), 앞의 글, 30쪽.

로 불리는 여신(女神)이다. 당(堂)의 제일(祭日)이 7일, 17일, 27일이므로 ‘칠일당신’이라 부르기도 한다. ‘서당할망’, ‘서당일뤼’ 등의 별칭은 일뤼당신이 육아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 육아의 효험, 유아의 경증, 경세, 이질, 복통 등의 치병 — 을 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더불어 일뤼당신이 산육신의 기능 외에 허물, 음 등 인간의 피부병을 고쳐주는 효험이 있어 ‘허물할망’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뤼당신이 제주도의 당(堂)신앙에서 산육신을 대표한다면, 삼성할망은 일반신으로서 산육신에 해당한다. 직능만 보아도, 일반신인 삼성할망과 당신(堂神)인 일뤼당신이 제주도 무속체계 안에서 산육신(産育神)의 직위(職位)를 동시에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두 본풀이의 서사구조를 살필 때 「할망본풀이」와 「일뤼당본풀이」 계열을 상호 무관한 것으로 판가름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아주 많다. 신직의 중첩(重疊)과 더불어 두 신격(神格) 사이의 상관성을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1) 「일뤼당본풀이」 채록본의 비교·검토

일뤼당신은 당의 제일(祭日)과 관련하여 붙여진 명칭일 뿐이다. 신격의 이름이 동일할 뿐, 제주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일뤼당신의 계보는 매우 다양하다. 제주시 일부와 애월읍, 한림에 이르는 구간에는 일뤼당신계 산육신이지만 일뤼당신이라 불리는 여신들보다 ‘송씨할망’ 또는 ‘송씨’ 성을 붙여 부르는 신들이 많다.⁵⁶⁾ 그러나 해당 구간은 산육신으로 기능하는 당신들의 분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주도 서부지역의 안덕면에서는 닥밭할망계로 분류되는 일뤼당신들의 이야기가 전승된다. 그러나 일곱 자매의 좌정처로 한정된다. 이는 중문의 열리게(상·하예리) 일뤼당신들이다. 한경면은 일뤼당신의 역할을 축일당계(丑日堂계系) 여신이 농경신의 역할과 함께 산육·치병의 기능을 담당한다. 서귀읍 호근리의 일뤼당 계열은 제주시에서 동회(東廻)하여 서귀읍에 이르기까지 토산 일뤼당계의

56)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제주시권)』, 도서출판 각, 2008, 44~45쪽.

이야기가 약간씩 변화를 일으키며 번져나가다 호근리에 이르러 새로운 신화로 바뀐 것이다. 이 계열의 일렛당은 서귀읍 일부와 대정읍, 그리고 산간을 거쳐 한림읍 금악에 이르는 분포를 지닌다.⁵⁷⁾

현용준은 일렛당이 전도적인 분포를 지니나, 그 본풀이를 중심으로 토산 일렛당 계열, 서귀읍 호근리 일렛당 계열, 안덕면 하모리 계열의 세 계열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⁵⁸⁾ 장주근도 본래 일렛당신의 본풀이는 그 당신(堂神)인 용왕의 셋째 딸이 좌정하게 되는 내력을 품 「토산웃동본풀이」 한 편을 가지고 섬의 동부지방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부르나 중부, 서부로 감에 따라서 일렛당계 본풀이가 분화한 것으로 보았다.⁵⁹⁾ 이처럼 일렛당신은 지역별 계보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나, 그 중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토산리 일렛당 계열이다. 토산리 일렛당신은 서귀포시부터 성산읍·구좌읍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 남부와 동부를 근간으로 분화하여 전승되었다. 그러므로 일렛당계 본풀이 계열 중, 토산리 「일렛당본풀이」가 가장 넓은 지역에 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체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몇 편 가운데, 표선면 토산리의 「일렛당본풀이」가 속한다.⁶⁰⁾ 분화 지역과 본풀이의 중요성으로만 보아도 일렛당 계열 중, 상대적으로 위상이 크다. 그런데 이 토산리 일렛당신은 용왕의 딸이며, 신격의 내력담이 「할망본풀이」 속 동해용왕아기씨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본고는 토산리 「일렛당본풀이」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할망본풀이」와의 상관성을 논하고자 한다. 토산리 「일렛당본풀이」의 계열 비교를 위한 채록본들은 다음과 같다.

[표 3] 토산리 「일렛당본풀이」 계열 비교를 위한 이본 목록

	본풀이명	구연자	수록 문헌	채록연도	채록자
㉔-㉕	토산본향당본풀이	진명옥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	현용준

57) 현용준(2007), 앞의 책, 770쪽.

58) 현용준은 『제주도 마을신앙』에서 중문 예리계 계열과 안덕면 하모리 계열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는 필자의 오류인 듯하다. 동(同) 저자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는 토산 일렛당 계열, 서귀읍 호근리 일렛당 계열, 중문면 하예리 일렛당 계열로 분류하고 있다. 안덕면의 창천·감산과 같은 일렛당들은 당신들의 계보로 볼 때, 중문 열리게(예리계)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59) 장주근(2001), 앞의 책, 44쪽.

60)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한국고전문화학전집 2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6, 11쪽.

	본풀이명	구연자	수록 문헌	채록연도	채록자
◎-b)	토산웃당본풀이	고대중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1970	장주근
◎-c)	토산리웃당본①	박생옥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1960	진성기
◎-d)	토산본향②웃당	강만원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누락	진성기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에 비해 당신본풀이를 수집·채록한 문헌은 비교적 적다.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과 장주근의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진성기의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등이 일반신본풀이와 함께 당신본풀이를 수집·채록한 대표적 자료이다. 그러므로 「일렛당본풀이」는 이 문헌들을 중심으로 이본들의 비교를 진행하되, 2009년에 제주도 서귀포시 전역의 신당조사 기록인 『제주신당조사 서귀포시권』을 부차적 자료로 참고하였다.

현용준의 책은 수록된 서사무가의 하단에 심방의 성별, 지역, 이름 등이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1969년에 탈고 되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채록 연도는 찾을 수 없다. 진성기의 책은 부록으로 제주도 무가 보유자 명단을 제공하고 있다. 행정구역 단위로 분류하여 심방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을 기록하여 놓아 편리하다. 채록된 서사무가 하단에 심방의 이름과 나이를 기록하여 부록과 견주면 채록연도를 계산할 수 있으나, 다소 번거로운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d)의 연창자인 강만원 심방은 명단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다.

◎-a)~◎-d)에 해당하는 토산리 「일렛당본풀이」의 대략적인 내용 전개는 다음과 같다.

[표 4] 토산리 「일렛당본풀이」 채록본의 비교·검토

본풀이명	구분	서사 전개
토산리	◎-a)	(1) 소로소천국과 금백조의 아들 브르뫼도가 죄를 지어 무쇄석함에 갇혀 동이와당으로 띄워버리니, 석함이 요왕국 산호수에 걸림. (2) 용왕국의 세 딸 중, 막내딸이 석함을 발견하고 열어 브르뫼도와 혼

본풀이명	구 분	서사 전개
<p>「일렛당본풀이」</p> <p>토산리</p> <p>「일렛당본풀이」</p>		<p>인을 하게 되어, 브르못도가 호첩을 하게 됨.</p> <p>(3) 브르못도의 식성이 너무 좋아, 용궁의 공간이 텅텅 비어가자 하는 수 없이 내외간을 무쇠석함에 실어 띄워 보내고 제주도 구좌면 하도리로 들어오게 됨.</p> <p>(4) 브르못도가 부술(符術)을 사용하여, 금백조에게 눈에 콩깍지가 들게 한 것을 용왕국의 막내딸이 청부채, 백부채, 황부채를 사용하여 낮게 함. 그 공으로 용왕국의 막내딸이 땅 한 척, 물 한 척을 금백조에게 내어달라 함.</p> <p>(5) 브르못도의 큰 부인이 첩인 용왕국의 막내딸에게 땅과 물을 떼어 준다고 하자 애가 타고 목이 말라,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마시다가 코로 돼지 털이 들어가게 됨.</p> <p>(6) 그 길로 브르못도에게 이르자, 동경내가 난다고 추궁함. 사실을 안 브르못도가 큰 부인을 마라도로 귀양 보냄.</p> <p>(7) 이 사실을 알게 된 작은 부인이 큰 부인을 귀양 풀리지 않으면, 자신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함.</p> <p>(8) 남편의 허락을 얻어 마라도로 귀양 간 큰 부인을 작은 부인이 데리러 나섬. 마라도에 가서 보니, 큰 부인이 이미 일곱 아기를 낳아 데리고 앉아 있었음.</p> <p>(9) 큰 부인이 자신은 해변가에서 개보말을 주워 먹으며 돌아 갈테니, 작은 부인에게 일곱 아기를 데리고 큰 길로 가라고 요청함.</p> <p>(10) 작은 부인이 일곱 아기를 업고 안고 걷게 하며 돌아오다가 목이 말라 남원 위미, 토산에서 정신없이 물을 마심. 옷도산 서당밭에 도착하여 보니, 아이 하나를 잃어버린 것 깨달음.</p> <p>(11) 황급히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나서니, 남원리에서 잃어버렸던 아이가 배가 고파 자갈, 흙을 주워 먹으며 울고 있었음.</p> <p>(12) 아이를 데리고 다시 서당밭에서 좌정함.</p> <p>(13) 이런 연유로 칠일날마다 마을 사람들이 위하는 상을 받아먹으며, 피부병과 이질, 복통으로 아기가 앓아도 이 신에게 기원하면 낫게 해줌.</p>
	<p>◎-①</p>	<p>(1) 소천국과 백주또가 살림분산을 하여, 일곱째 아들이 아버없는 아들이라 놀림을 당함.</p> <p>(2)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자취를 물으니, 영아리친밭에 강진역 따님애기를 첩 삼아 살고 있다고 이야기 해줌.</p> <p>(3) 아버지를 찾아가 상봉하나, 아버지에게 너무 버릇없이 행동하여 아버지가 무쇠석함을 만들어 그 곳에 감금하여 동이와당(동해바다)에 버림.</p> <p>(4) 석함이 유황황제국에 들어가 산호수 상가지에 걸림.</p> <p>(5) 때마침 유황황제의 꿈에 산호수 상가지에 청룡, 황룡이 얽힌 듯한 꿈을 꾸고는 세 딸들에게 나가 산호수 상가지를 살펴보라 함.</p> <p>(6) 세 딸 중 셋째 딸애기만이 석함을 발견하였고, 석함이 발견된 뒤에도 두 언니는 석함을 열지 못하였으나 셋째 딸애기가 석함을 발로 두드리니 석함이 쉽게 열림.</p>

본풀이명	구분	서사 전개
<p style="text-align: center;">토산리 「일렛당본풀이」</p>		<p>(8) 셋째 딸과 혼인을 맺게 됨. (9) 덕성이 너무 좋아, 유황황제국의 곳간이 텅 비어감. (10) 황제국이 무쇠석함에 내외를 넣어 물으로 추방함. (11) 바다를 떠돌다 구좌면 종달리의 포구에 내려 백주또를 찾아 가던 도중, 아기씨가 물을 먹다가 멧돼지털이 코에 걸려 피가 남. (12) 이에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물도 나무도 없는 마라도로 귀양 보내고 부모를 찾아 헤맸으나, 이미 세상을 떠남. (13) 여섯 형제들을 각각 좌정시키고, 자신은 토산리 서쪽의 일렛당신으로 좌정함. (13) 아버지의 자취를 찾아 헤매다, 오백장군 따님애기를 첩으로 삼게 됨. (14) 큰부인의 존재를 알게 된 오백장군 따님애기가 큰 부인이 없는 이상 자신도 함께 살 수 없다 하자, 남편이 큰 부인과 같이 사는 것을 제안함. (15) 큰부인을 데려 오고자 오백장군 따님애기가 마라도로 감, 큰 부인은 이미 여섯 아이를 낳고 일곱 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음. (16) 임신을 한 탓에 개보말이 먹고 싶어 해변가를 따라 가며 주워 먹고 갈 것이니, 오백장군 따님애기에게 아기들과 아기 업개들을 데리고 중산촌으로 올라가라고 함. (17) 중산촌으로 가는 도중 신엄출귀동산에서 짚신의 끈이 떨어져 다시 묶여 오던 중에 아기 하나가 없어짐. (18) 없어진 아기를 찾았으나, 이미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새풀 그루터기에 몸이 상하고, 매추라기가 눈과 코를 쪼아버린 상태였음. (19) 몸과 얼굴이 상한 아기로 인하여 안질, 몸 비리는 움 등이 인간들에게 퍼지게 됨.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잘 데리고 와, 나머지 아기들을 정성스레 키워 장성시킴.</p>
	<p>㉠-㉡</p>	<p>(1) 금백조와 소천국의 아들이 불효하여, 설잡 속에 가두고 요왕국에 귀양을 보냄. (2) 요왕국의 셋째 딸(신중부인)이 설잡을 발견하고, 열리게 하여 브름운님(금백조와 소천국의 아들)과 결연하게 됨. (3) 브름운님이 결연을 맺어두고도 요왕국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추물식상도 아니 받고, 부부 간에 합방을 거부함. (4) 브름운님의 식성을 맞추기 위하여, 진수성찬으로 삼년 간 브름운님을 대접하다보니 요왕국의 창고가 텅텅 비어감. (5) 하릴없이 요왕 패도선을 내어주며, 브름운님과 셋째딸을 추방함. 셋째 딸에게 요왕부부가 청주머니, 백주머니를 내어주고 안질을 주고, 낮게 하는 방도를, 언니들은 부스럼지를 내어주고 피부병과 흉염(疾病)을 사람들에게 주어 만민에게 대접을 받아 가며 살라 일러 줌. (6) 물에 이르러 부모를 찾아 간 브름운님이 금백조와 소천국의 눈에 부술로 콩깍지가 들게 하여, 안질을 일으켰다 낮게 함. (7) 시부모의 요청으로 브름운님과 요왕의 셋째 딸이 토산 서당밭으로</p>

본풀이명	구분	서사 전개
		<p>좌정하여 분가를 가던 중에, 임신 중이었던 요왕의 셋째 딸이 자신은 주변을 구경하고 갈테니 먼저 서당밭에 가 있으라 함.</p> <p>(8) 유람 중, 목이 말라 돼지밭자국에 고인 물을 마시다가 돼지털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니, 불로 털을 그슬림. 돼지고기를 먹은 것처럼 동경내가 나는 채로 서당밭에 도착하게 됨.</p> <p>(9) 브름운님이 이 냄새가 부정하다 하여, 마라도로 부인을 귀양 보냄.</p> <p>(10) 브름운님은 새로이 저산국 떠남얘기를 첩으로 들었으나, 저산국 떠남얘기가 본처를 그만한 일로 귀양보낸 것이 옳지 못하다고 브름운님을 설득하여 귀양을 풀리려 감.</p> <p>(11) 마라도 서쪽 곳에 도착하니, 본처는 아기 일곱을 나아 있었음. 저산국 떠남얘기가 요왕국 셋째 딸을 달래어 함께 서당밭으로 오는 중에, 그 동안 아기들 낳고 고생했으니 형님은 개보말을 잡아먹으며 오고 자신은 아기들을 업고 똥길로 가겠다고 함.</p> <p>(12) 저산국 떠남얘기가 아기들을 데려가다, 익은 열매를 따먹느라 정신이 팔려 아기 하나를 잃어버림.</p> <p>(13) 요왕국 셋째딸이 이를 추궁하니, 저산국 떠남얘기가 남자옷으로 갈아입어 아기를 찾으려 감. 아기는 삼동나무에 찢린 채 울고 있었음.</p> <p>(14) 아기를 달래려 두 부인이 갖은 노력을 하여 울음을 그치게 하고, 만민단골에게 초일똥, 열일똥, 스무일똥마다 상을 받아먹게 됨.</p>
<p>토산리 「일똥당본풀이」</p>	<p>㉠-㉡</p>	<p>(1) 금백주와 소천국의 아들 문곡성이 일곱 살 나는 해에 부모에 불효하고 행실이 불경하여, 무쇠석곽에 갇혀 물 위로 버려짐.</p> <p>(2) 석곽이 떠다니다 동해용궁 요황황제 집의 산호수 상가지에 걸리고, 이것을 요황국의 셋째 딸이 발견하여 열리게 함.</p> <p>(3) 요황황제가 문곡성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셋째 딸과 혼인 시키나 문곡성이 음식도 먹지않고, 남자와 여자도 구별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를 딸에게 전해 들음.</p> <p>(4) 문곡성을 불러다 요황황제가 연유를 들으니, 물에서 먹던 음식이 없어 너무 배가 고파 그렇다고 대답함. 문곡성이 먹던 음식들로 진수성찬을 차려 삼년간 대접하니, 요황국의 창고가 텅텅 비어감.</p> <p>(5) 요황국이 망할 지경까지 이르자, 셋째 딸은 문곡성과 의논하여 자신의 부모에게 서천 주머니를 받고 무쇠석곽을 타고 제주도 송당으로 들어오게 됨.</p> <p>(6) 문곡성이 자신의 부모에게 주머니로 부술을 부려, 안질을 불러일으킴. 문곡성의 부모가 토산으로 가서 좌정하여 만민단골에게 대접 받으라 문곡성을 달래어 보냄.</p> <p>(7) 요황황제의 셋째 딸은 아랫 한길로, 문곡성은 윗 한길로 갈라져 토산으로 향하게 됨. 도중에 극심한 가뭄을 만나게 되자, 요황황제의 셋째 딸은 길가에 고여있는 물을 엮드려 마시다 돼지털이 콧구멍으로 들어가게 됨.</p> <p>(8) 부부 간에 상봉을 하니, 문곡성이 부정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연유를 들은 후, 양반의 부인 행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파도에 귀양을 보</p>

본풀이명	구분	서사 전개
토산리 「일렛당본풀이」		<p>냄.</p> <p>(9) 문곡성은 혼자 살 수 없어, 소과부처를 들었는데 첩이 본처가 귀양간 것을 알고 전처에게 박접하면 후처에게도 박접하게 된다하자 문곡성이 셋이 함께 살 것을 제안함. 첩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가파도로 요황황제 셋째 딸을 데리러 감.</p> <p>(10) 가파도에 가보니, 큰 부인이 일곱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음. 첩이 큰 부인을 설득하여, 자신은 일곱 아기를 데리고 윗한길로 갈 테니, 큰 부인은 바닷가를 따라 돌아오라고 함.</p> <p>(11) 토산으로 돌아가 큰 부인에게 아기들을 돌려주다 아기 한 명이 없어진 것을 발견 함. 첩이 급히 오던 길을 되돌아가 보니, 잃어버린 아기가 띠그루터기에 떨어져 허물병을 앓고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함.</p> <p>(12) 아기를 데려와, 큰 부인과 작은 부인이 돌아가며 달려어 봐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 양팔로 안은 채 좌정하여 단골들의 정성을 받음.</p>

위의 서사전개를 토대로 토산리 「일렛당본풀이」 계열에 나타난 특성들의 상세한 비교·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직능, 추방원인, 혼인여부에 준거를 두고 서사를 구분한 것이 다음의 [표 5]이다.

[표 5] 토산리 「일렛당본풀이」 이본의 준거별 비교

구분	토산리 「일렛당본풀이」			
	㉠-a	㉠-b	㉠-c	㉠-d
(1) 좌정신격	큰부인, 작은 부인(용왕녀)	큰부인 (용왕녀), 작은부인 (오백장군따님얘기)	큰부인 (용왕녀), 작은부인 (저산국따님얘기)	큰부인 (용왕녀), 작은부인(소과부처)
(2) 직능	산육/치병(피부병)/농경			
(3) 추방원인	식성갈등			
(4) 혼인여부	기혼			

먼저 (1)을 중심으로 볼 때, 토산리 일렛당신으로 좌정한 각 신격들은 여신(女神)으로 압축된다. 그런데 ㉠-a는 작은 부인의 내력을 요왕국의 딸로 나타내고 있는 반면, ㉠-b~㉠-d의 이본들은 큰 부인을 요왕국의 딸로 설정하고 있다.

내용의 보편성을 근거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식성의 갈등으로 쫓겨난 용왕의 딸을 큰 부인이라 하겠다.

(2)에 해당하는 일렛당신의 신직(神職)은 본풀이 상에서 산육과 치병(피부병)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산리 일렛당신의 계보를 가지고 분화된 당들은 치병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그러나 이 일렛당신이 본향당신으로 좌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산육과 치병은 물론 생산, 물고, 호적, 장적의 전반을 담당하는 신이 된다.⁶¹⁾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추방은 대개 ‘부정’ 혹은 ‘획죄(獲罪)’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런데 (3)에 나타난 토산리 「일렛당본풀이」의 경우, 추방의 원인이 식성갈등(육식금기의 파계)으로 나타나 특이하다. (4)의 준거로 볼 때, 토산리 「일렛당본풀이」는 여성신과 남성신과 결연을 중심으로 무가의 서사구조가 전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대부분의 제주도 당신본풀이들이 지닌 화소이다.

토산리 「일렛당본풀이」 채록본들을 비교·검토하여 일대기를 추출할 수 있다. 토산리 일렛당신은 요왕의 딸로 태어난 여성신이 송당계 계보의 남성신과 결연하는 내력담을 그린다. 그리고 그 뒤의 서사는 육식 금기의 파괴를 어겨 남성신으로부터 추방되나, 일곱아기를 낳고 다시 돌아와 일렛당신으로 좌정하는 일대기로 전개된다. 이 신은 육아와 치병(피부병)을 중점으로 신능을 발휘한다. 또한 단순히 산육신, 치병신에 한정되지 않고 본향당신으로 마을을 수호하는 신격으로 좌정한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2) 「할망본풀이」의 형성과 「일렛당본풀이」의 상관성

제주도의 토착 신앙에서 가장 보편적인 산육신은 일렛당신이었다. 그 중, 토산리 「일렛당본풀이」는 분화 지역과 서사무가의 중요성으로 볼 때, 일렛당 계열의

61) 태흥 1리 본향 들렁머리당, 신흥 1리 본향, 신흥 2리 본향 오로콤포머체 큰당, 의귀리 본향 녁시오름 널당에는 토산리 일렛당신이 본향당신으로 모셔져 있다. 이 경우, 일렛당신은 생산, 물고, 호적, 장적 등을 관장하는 본향당신의 기능을 지닌다.

근간이 된다. 그 뿐 아니라 토산리 일렛당신의 내력은 「할망본풀이」에서 당신본풀이의 화소를 차용한 동해용왕아기씨와 유사한 점이 있다. 산육신이라는 동일한 직능에 관련된 신격이라는 점도 일치한다. 따라서 「할망본풀이」의 동해용왕아기씨와 토산리 일렛당신의 특성을 면밀하게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 6] 「할망본풀이」와 토산리 「일렛당본풀이」의 신격 비교

구 분	「할망본풀이」 속 동해용왕아기씨	「토산일렛당본풀이」, 계열
(1) 출생	(동해)용왕의 (말갓)딸	(동해)용왕의 (말갓)딸
(2) 신격	일반신(저승할망)	일렛당신
(3) 직능	산육 → 유아의 질병,흉험	산육,치병,농경/풍운조화(열두흉험)
(4) 추방원인	불효죄	식성갈등
(5) 혼인여부	미혼	기혼

[표 6]을 근거로 볼 때, 쫓겨난 용왕의 막내딸은 일렛당신인 동시에, 구삼성할망으로 좌정한 동해용왕아기씨로 동일하다. 일렛당신은 제주도에서 마을 단위로 무속공동체를 구성하는 당 신앙의 대표적 신격이다. 이 신격은 농경, 산육, 치병에 걸치는 넓은 범주를 관장한다. 특히, 아이가 아프거나 몸에 부스럼이 나면, 옛 어머니들은 치병신인 일렛당신을 찾아가 빌고 효험을 바랐다.

그러나 당신(堂神)이 열두 흉험(凶險)을 주고, 인간에게 재앙으로 병을 주는 경우가 있다. 바로 모든 당신들에게 공통되어 나타나는 ‘풍운조화’이다. 때문에 일렛당신은 치병신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심기가 거슬렸을 때는 언제든 지 관련 질병을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렛당신과 신앙민의 관계에서 오는 부정적 측면을 모아, 산육이라는 범주에 한정지으면 이것은 곧 구삼성할망의 역할이다.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기원을 통한 효험)을 산육의 범주에 한정하면 삼성할망과 일치한다. 이렇게 볼 때, 일렛당신의 역기능과 순기능적 면모가 「할망본풀이」의 두 여신에게 양분(兩分)된 셈이다.

당신과 일반신이라는 신격이 형성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신앙이 제주도의 가장 원초적이며, 토착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 할 때, 토착적 산육신이 지닌 신능(神能)이 「할망본풀이」에서 갈등과 투쟁을 통해 분리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용왕아기씨와 일렛당신의 대표적 일대기에서는 추방원인, 혼인여부에 따른 차이점이 발생한다. 먼저, 토산리 일렛당신은 목이 말라 길가에 고인 물을 먹다가, 돼지의 털이 코에 걸리는 바람에 부정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추방당한다. 부모에게 불효죄를 지어 버려진 남성신(男神)을 언니들과 달리 알아볼 수 있었던 탓에 둘은 결연(結緣)한다. 그러나 처가(妻家)의 곳간을 텅 텅 비게 하는 남편의 대식(大食) 습성으로 인해, 남성신에게 부속되어 물으로 쫓겨나기에 이른다. 두 번이나 추방당한 남편을 따라 온 용왕의 딸이 버림받은 이유는 오직 ‘돼지털로 인한 부정함’이었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에서 그 서사구조가 미식신(米食神)과 육식신(肉食神)의 대립관계로 정의될 때, 육식(肉食)의 식성으로 추방당하는 쪽은 남성(男神)이다. 「궤네깃당본풀이」, 세화리 「본향당본풀이」의 백주또, 「세경본풀이」의 자청비, 「삼성신화」에서 오곡의 종자를 가져온 벽랑국의 세 공주까지 미식(米食)과 농경은 오히려 제주도 본풀이에서 여신(女神)과 관련이 깊다.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에서 농경과 관련된 여신이 미식을 주로 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토산 일렛당 계열의 여신들은 육식 금기에 파기하고 쫓겨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산 일렛당 계열의 여신들은 산육신, 치병신, 농경신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현용준은 이러한 역전 현상의 원인이 토산리 일렛당신의 다산(多産)에 있다고 보았다. 돼지는 다산성(多産性)을 가진 동물인 동시에, 여성의 출산에 필요한 음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렛당신이 일곱 아이를 낳았던 것은, 돈육(豚肉)으로 표상되는 돼지털을 섭취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⁶²⁾

그러나 육식과 미식의 법칙이 깨어진 것은, 오직 일렛당신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일렛당 계열에 차용된 육식금기의 파기는 부부신(夫婦神)의 별거 원인이 되는 보편적인 당신 본풀이의 작법을 차용한 부수적인 작법으로 보아야 한다. 신화에서 특정 화소나 원형의 반복은 신화의 시간성과 기능을 이해하는 단서로 작용

62) 문무병(2009), 앞의 책, 163~168쪽 참조.

한다.⁶³⁾ 유독 일렛당 계열에서만 육식금기의 파괴가 여타의 당신본풀이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보편성이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논지는 아직까지 미약한 추론에 가까울 뿐이다. 육식신과 미식신이 뒤바뀌는 착종현상과 관련한 연구는 차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할망본풀이」에서는 남성신과 여성신의 결연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립과 승패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 영웅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국신화나 무속신화에서 천신이 남성으로 묘사되는 데 반하여, 「할망본풀이」에서는 명진국아기씨가 천신계의 출자로 나타난다. 특이한 예라 하겠다. 그러므로 결연의 화소를 굳이 삽입할 필요가 없었다. 「할망본풀이」에 등장하는 두 여신은 처녀신이다. 본풀이 상에서 남성신과 결연담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동해용왕아기씨가 처음 임박사를 만나고, 임박사의 부인을 해산시키지 못하여 앓아 우는 곳의 명칭은 ‘처녀물가’였다.

이수자는 아기 생명의 순수성, 신성성, 그리고 미숙성을 인정하였기에 신화 형성 집단이 산육신을 특히 결혼하지 않은 순수한 여성신으로 설정한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제주도 산육신의 체계를 협소하게 바라 본 결론이다. 어머니신에서 처녀신으로 변화하는 제주도 산육신의 변천 또한 분화된 유형적 특징들을 입체적인 시각으로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⁶⁴⁾

「할망본풀이」 서사의 큰 축은 세 개로 나뉘는데, 동해용왕아기씨의 개별담, 경쟁자인 명진국아기씨의 개별담, 두 신격이 만나 갈등이 형성되며 새로운 사건으로 확장되는 투쟁담이 그것이다. 특히, 동해용왕아기씨 개별담에서 서사 전개의 중심이 되는 화소가 토산리 「일렛당본풀이」에서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를 기반으로 삼은 동해용왕아기씨의 일대기에서는 당신본풀이에서 주로 발견되는 남성신과 여성신의 결연(結緣)과 육식금기의 파괴 등의 요소는 찾을 수 없다. 이는 토착적인 화소들을 차용하여 본토부의 여성영웅과 견줄 수 있도록 비등한 여신의 내력을 구조화하는 작업을 통해 침식된 것으로 추측된다.

63) 강등학 외, 앞의 책, 60쪽.

64) 현용준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지리적 요건에서 찾았다. 본향(本鄉)에서 계보화 되다 보니, 신격의 좌정처의 주변에 결연시킬 남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남신은 결연한 상태에서 뒤늦게 본풀이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근처에 이성신(異性神)이 존재하여도, 대등한 배위신(配位神)이 없는 경우 역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당신본풀이의 영향을 받은 일반신본풀이인 「할망본풀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밝혀진 바 없다.

남성신(山神)과 용왕의 딸의 결연과정이 나타나는 수산리의 「본향당본풀이」를 살펴보자. 수산리 「본향당본풀이」는 토산리 「일렛당본풀이」와 매우 유사하다. 남성신의 특성이나, 큰 부인과의 식성 갈등으로 살림분산과 귀양이 이루어진다. 처첩(妻妾) 간의 이야기를 다룬 것, 큰 부인이 귀양처에서 일곱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다는 정황도 일치한다. 인물의 특성, 서사적 전개와 내용이 대략적으로 일치하니, 두 본풀이가 계보는 다르나 동일한 전승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수산리 「본향당본풀이」의 서사 전개를 편의상 네 단락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⁶⁵⁾

- (1) 수산 하로하로산은 아방국은 종달리, 어명국은 멩호부인으로서 중국에서 솟아났다. 그러나 글공부, 활공부를 하다 부모의 눈 밖에 나게 되어 쫓겨나 제 주도로 들어오게 된다.
- (2) 좌정처를 탐색하던 도중 송당에서 금백주를 만나 결연하게 된다. 그러나 금백주가 목이 몹시 말라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시다 그 속에 들어있던 돼지 털이 코를 찔러 피가 나게 된다. 이를 안 하로하로산은 금백주의 부정(不淨)에 노(怒)하여, 대정의 마라도로 부인을 귀양 보낸다.
- (3) 금백주를 귀양보낸 후, 요왕국에 들어간 하로하로산은 요왕국 말갓뜯아기를 첩으로 삼아, 데리고 온다.
- (4) 요왕국 말갓뜯아기가 금백주의 귀양을 풀리려 마라도로 가보니, 이미 일곱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다. 요왕국 말갓뜯아기가 일곱 아기를 데려 오고, 금백주도 다시 돌아와 삼부처가 많은 자손을 낳고 살다가, 후에 자식들에게 좌정처를 물려주고 자신들은 수산리 본향당에 좌정하였다.

수산리 「본향당본풀이」에서 남성신과 용왕의 딸이 결연하는 과정은 토산리 「일렛당본풀이」와 일치한다. 그러나 용왕의 막내딸만이 남성영웅을 알아보고 결연을 할 수 있었던 과정이나, 부부신이 용왕국으로부터 추방되는 이야기 등은 완전히 생략되었다. 이는 해당 본풀이가 토착신격인 금백조와 맺은 결연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리 「본향당본풀이」에 용왕녀의 이야기가 삽입된 것을 두고, 강정식은 표선지역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이 본풀이

65) 수산리 「본향당본풀이」는 『무속자료사전』에 채록된 것을 활용하였다. 현용준(2007), 앞의 책, 589~590쪽.

전승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하였다.⁶⁶⁾

토산리 「일렛당본풀이」처럼 산신(山神)과 결합한 일렛당신의 본풀이는 제주도 어디에서나 흔히 발견되나, 그 가운데 특히 남제주군 표선면 일대에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근간이 송당계임을 감안하면 여타 송당계와는 달리, 남성신이 전장(戰場)에 나가 공을 세운다는 내용이 없는 대신 용왕녀의 내력담이 확장되어 있어 주목된다.⁶⁷⁾

이렇게 볼 때, 「할망본풀이」속 동해용왕아기씨의 내력담은 제주의 당신본풀이에서 볼 수 있는 용왕녀의 일대기를 기반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용준은 본래 이 용왕말녀(龍王末女)가 해양관장신(海洋管掌神)으로 당(堂)의 여신(女神) 중에는 가장 오랜 내력을 지녔음을 밝힌 바 있다.⁶⁸⁾ 또한 수산리 「본향당본풀이」를 포함한 여타의 당신본풀이에서 추방의 대상은 주로 남성신인 반면에, 토산리 「일렛당본풀이」와 「할망본풀이」에서는 여성신으로 대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용왕녀의 내력담의 확장과 더불어, 여성영웅으로서의 면모도 추가적으로 덧붙여진 셈이다.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일반신본풀이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온 것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그 결과 일반신본풀이는 더욱 풍부해지고 지역적인 변이가 뚜렷해지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당신본풀이가 일반신본풀이로 편입되는 결과로 귀착되는 예들은 도처에 존재한다.⁶⁹⁾ 제주도의 산육신 신앙 역시 이러한 상호 교섭 과정 속에서, 점차 독자적인 신화 형태를 창출하며 성립된 것으로 인식된다. 그 결과 「할망본풀이」라는 새로운 산육신의 좌정담이 탄생하였다. 또한 그것으로부터 본토부와의 성격과 토착적인 제주도만의 특성을 모두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산육신 관련 본풀이는 제주도 나름의 지역형을 보전하면서, 본토부의 신화적 사고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결국, 토착적인 무속신화인 당신본풀이를 바탕으로 외래적 소재들이 결합하여 기존에 없던 독자적인 산육신 신화를 형성한 것이다.

66)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2, 79~80쪽.

67) 강정식,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당신양 연구」, 『한국무속학』 6집, 한국무속학회, 2003, 137쪽.

68) 玄容駿(1992), 앞의 책, 141쪽.

69) 강정식(2002), 앞의 글, 156쪽.

그렇다면 ‘왜 용왕녀의 일대기가 가장 보편적인 산육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무병은 당신본풀이에서 용왕의 말자딸이 송당계 산신과 결혼하는 화소 없이 좌정하는 경우, ‘용녀부인’, ‘요왕또’ 등으로 불리는 해전수호신(海田守護神)의 직능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용왕의 말자딸이 임신 중 돈육식성으로 남편에게 쫓겨나 일렛당신이 되는 경우, 이 신은 농경신인 동시에 육아·피부병의 신으로 기능하게 된다.⁷⁰⁾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지리·생태적 환경이 용왕녀라는 신격을 탄생시켰다. 바다는 제주인들에게 삶의 터전이었고, 경외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형적 신성관념이 자연스레 바다와 관련한 신화적 사유로 전환됨은 당연한 이치였다. 덧붙여 엘리아데는 물은 모든 존재 가능성의 저장소이며,⁷¹⁾ 모든 형태가 발생하는 원초적 물질을 상징하는, 발아력을 지닌 생명의 근원이자 원천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⁷²⁾ 삼성신화에 등장하는 벽랑국이 실제로는 해국(海國)을 상징하며, 세 처녀가 바다를 건너 오곡 종자와 가축을 들여오는 것은 바다 곧 물이 지닌 풍요성과 관련 깊다.

굳이 이 같은 물의 원형적 상징을 논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차신앙에서 물과 관련된 일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용신(龍神)이 거처하는 곳으로 인식되는 물가의 영험한 장소에서 치성기자를 드리거나, 이른 새벽에 공동우물에 나가 제일 먼저 샘물을 마시는 행위의 음식기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알영정(알영의 탄생처)에는 근처에 우물이 존재하며, 한국에는 고래로 약수 영천신 양이 있었고 거기에는 흔히 용신신앙이 따랐다. 여기서 용은 그 물의 종교적 상징이고, 애기씨 또는 부인은 그 인격화이다. 물과 여신, 그리고 특히 용은 순조로운 풍우의 조절자로서 풍요를 거둬 상징해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⁷³⁾

이 같은 연결 고리가 용왕녀의 일대기가 가장 보편적이었던 제주도 산육신의 모습을 대변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마을의 샘과 관련된 물할망 등이 산육신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을 추측할 수 있다.

70) 문무병(2009), 앞의 책, 196쪽.

71) 미르치아 엘리아데, 박규태 역, 『상징, 신성, 예술』, 서광사, 2001, 37쪽.

72)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재실역, 『종교사개론』, 까치글방, 1993, 183쪽.

73) 장주근, 『풀어 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232쪽.

Ⅲ. 제주도 산육신 신앙체계와 「할망본풀이」의 특성과 미학

1. 「할망본풀이」와 제주도 산육신 신앙체계에 나타난 특성

1) 고유신격과 유입신격의 이중구조

「할망본풀이」는 고유신격과 유입신격의 개별 내력담이 투쟁의 서사로 연결되어 한 편의 완전한 서사체가 되었다. 「할망본풀이」의 형성 원리가 실제 신격의 대립을 반영한 것이라면, 당신앙과 일반신앙이 현전(現傳)하는 제주도의 신앙 체계에서도 이 같은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한다.

당신(堂神)과 일반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앙의 범위 제한 여부에 있다. 당신은 마을 단위의 수호신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범위는 마을에 한정된다. 반면에, 일반신은 당신처럼 신앙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제주도 전 지역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섬긴다. 따라서 당신과 일반신으로 양분되어 있는 산육신 체계를 전승민은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는 문제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서가 된다. 다음은 육아와 관련된 의례, 신앙을 전승민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조사한 자료들이다.

(1) 토평동에서는 일똥당에 가거나 허물당에 가서 빌었다. 특히 아기가 피부병으로 고생할 때는 허물당을 찾아가서 기원하면 효험이 있었다고 한다. 아기가 아프거나 운수가 좋지 않거나 또는 크게 놀랐을 때 앞서 말한 방법들을 행했는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불도맞이>를 한다. 맞이굿이니 심방을 청하여 규모 있게 굿을 벌인다.⁷⁴⁾

(2) 아이가 특별히 놀라는 일을 겪으면 심방을 불러다 <넋들임>(넋들임)이나

74) 강정식·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인의 일생의례 : 제주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90쪽.

<푸다시> 등의 무속 의례를 한다. 흥역을 앓은 뒤에는 역시 심방을 불러 <마누라 배송>을 한다. 당시 심방에게 특별한 사례가 없었고, 심방집에서 하는 당주제(9월 28일)에 쌀 등을 가져갔다. 평상시에는 본향당과 일뤼당 등에 가서 빈다.⁷⁵⁾

- (3) 삼신할머님 전에/ 빌고 비나이다/ 요 자식의 얼굴 보소서
 침술(鍼術)장이 많다 한들/ 아무 효험 없습니다/
 약방약이 많다해도/ 일체 효험 없습니다
 신방을 청했으니/ 온갖 잡귀 쫓아 주옵소서⁷⁶⁾

- (4) 만일 무속인에 의한 뉘드림 의식을 하지 못할 때에는 부모가 간단히 찬물로 아이의 머리에 지치며, “어이 뉘들라, 어이 뉘 들라.”라며 구송하기도 하였다 고 한다. 이 뉘드림 의식은 제주 동북부 지역만이 아니라, 제주 전역에서 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중요한 의식으로 여겼다.⁷⁷⁾

제주도에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뉘드림’(넉드림) 의례는 (4)처럼 여의치 않은 경우, 부모가 직접 행할 수도 있었다. 아이가 놀라는 일을 당했을 때, 한시라도 급히 이 같은 의식을 치러 아이의 뉘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 같은 신앙민의 의식으로 짐작건대, 산육의 범주에 있어 일뤼당신과 삼승할망이 모두 신으로 숭앙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신앙은 신앙민의 생활범위에서 생업(生業)의 유지와 함께 최접선에 위치하도록 하였던 듯하다. 일뤼당신은 언제든지 자식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달려가 의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신앙이었다. 전도적인 일뤼당의 분포는 산육·치병 관련 신당이 자신들과 가장 근접(近接)하기를 바랐던 신앙민의 기층 의식의 투영이다.

반면에 (1), (2), (3)의 예문으로 판단할 때, 무속에서 일반신 신앙은 심방에게 전적으로 의식을 맡기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심방을 청하여 기원하는 <뉘들임>(넉드림), <불도맞이> 등의 의례는 부모와 가족의 판단 하에 아이의 상태가

75) 강정식·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14쪽.

76) 高璨華, 『제주의 전설과 민요 — 濟州의 傳説과 傳來民謠集』, 디딤돌, 2004, 127쪽.

77) 강정식·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339쪽.

극심한 경우 치러졌었다. 특히, 당신양에 먼저 의지하였다가 효험을 보지 못했을 때 삼성할망에게 문제의 해결을 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일상적인 기원이나 자식의 잔병치레에 대한 호전(好轉)은 일렛당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심방에 의한 의례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셈이다.

제주도 심방의 굿놀이 중에, <아기놀림>이 있다. 본디 이 <아기놀림>은 토산 당곳에서 행해지던 것이다.⁷⁸⁾ 토산의 신당은 옷당(일렛당)과 알당(으드렛당)으로 나뉜다. 이 때 두 신을 위하는 굿놀이가 토산 당곳에서 각기 진행되었다.⁷⁹⁾ 이때의 <아기놀림>은 마을신인 일렛당신을 위하고, 마을공동체의 안위와 건강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것이 개별적 의례로 치러질 때에는 토산 당신을 신앙하는 집에서 주로 질병치료나 연례적 행사로서 행하는 굿이거나,⁸⁰⁾ 굿을 의뢰한 본주(本主)가 토산과 얽힌 내력을 가졌을 때이다.⁸¹⁾ 일반적으로 토산당(兎山堂)은 사신(蛇神)인 으드렛또의 전승이 막강한 탓에, 일렛당 신앙의 근간이 토산임에도 상대적으로 그 동안 주목받지 못하였다.⁸²⁾

<방울푼>(방울푼)과 <아기놀림>은 당신본풀이가 굿놀이로 전해지는 경우다. 본풀이 상의 한 대목이 극화된다는 점, 맺힌 한을 풀어 주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방울푼>(방울푼)은 본풀이의 내용을 재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나 <아기놀림>은 본풀이의 내용보다 육아 생활의 실체가 의례에 고스란히 반

78) 한만영, 현용준에 따르면, 이 토산당곳은 예전에는 6월 7~8일과 11월 7~8일에 대제(大祭)를 지냈었는데 일제시대 이후로 점점 쇠퇴되었다고 한다. (6월 7일과 11월 7일은 일렛당에서 행하는 당제(堂祭)이며, 6월 8일과 11월 8일은 으드렛당에서 행하는 당제(堂祭)가 진행됨.) 또한 1948년에 일어난 4.3사건 이후로 토산리에서 당곳이 아주 없어져, 신앙가정이나 무당집에서 개별적으로 소규모의 굿을 하는 정도로만 남아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마을 제의로 치러지는 경우를 '제일(祭日) 치기', 후자를 '본향(本郷)풀이'라고 일컫는다. 韓萬榮, 『濟州道の 巫樂研究: 토산당곳을 중심으로』, 『韓國音樂研究』 제8·9집, 韓國國樂學會, 1979, 9쪽; 현용준(2013), 앞의 책, 191쪽.

79) 토산당곳에서 일렛또(일렛당신)를 위하는 굿놀이가 <아기놀림>이며, 으드렛또(뱀신)을 위하는 놀이는 <방울푼>이라 불린다.

80) 현용준(2013), 앞의 책, 191쪽.

81) 필자가 현재까지 활발하게 제주곳의 현장을 조사하는 강소전 선배에게 문의한 결과, 토산알당(으드렛당)의 당곳은 없어진지 오래되었지만 토산옷당(일렛당)의 당곳은 약 4~5년 전에 연행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4~5년 전에 치러진 당곳에서는 <아기놀림>과 같은 굿놀이는 없었으며, 매우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82) 문무병 채록의 <아기놀림>은 2000년도 관덕정 탐라입춘굿놀이에서 공연되었다. “일반신으로서 각 관청을 관장하는 수호신은 사신(蛇神)인 ‘칠성’인데, 이 신을 안내하는 본도지관 본향당신이 바로 ‘토산 으드렛또’이다. 따라서 칠성을 놀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산당신놀림’을 행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아기놀림>은 사신보다 일렛당신과의 연관성이 깊다. 토산이라는 지역에 옷당과 알당이 모두 존재하다보니,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인한 결과라 생각된다. ‘토산옷당본풀이’와 <아기놀림>은 신의 직능이나, 의례의 성격에서 사신과의 관련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영된다는 점이 다르다.⁸³⁾

설운 아기 노념호저 설운 큰어머님 호여 주던 던데떡 죽은 어머니 호여 주던 좀
메떡으로 지달래자. [樂. 업은 아기 인형의 손을 잡고 짹짹 죄암질을 하며 춤
춤] (...중략...) 설운 아기덜 아바님, 설운 아바님 어서 가져. 아방국 좃젠호 아기
너미 울었고나. 그리말고 설운 아바님 진짓상 늦어온다. (...중략...)

침짱 품짱 허여 보난, 설운 아기 오뉴월(五六月) 한더위에 너미 입언 즈드랑이
물러진 듯 허여온다. 설운 아기 부령 노념호고 몸모욕 시키곡 던데 좀메 너잡음짱
도 호라 한다. 좀재움짱도 호라 한다. (...중략...) 설운 아기 몸모욕 시견 보난 너
미 울었고나. 그리 말고 설운 아기 노념 호고 던데 좀메 마니짱도 노념이여. [樂.
짹자짱 죄암죄암 도리도리 시켜 노는 시늉의 춤을 시켜 노는 시늉의 춤을 춘 후,
아기를 채롱(아기구덕)에 눕혀 자장가를 부르며 혼든다.⁸⁴⁾

<아기놀림>에서 연창되는 심방의 사설이다. 동시에 등에 아기 인형을 업고 음식
을 먹이기, 목욕시키기, 재우기 등의 일련의 육아(育兒) 행위를 그대로 재현한
다. 버려진 아기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지는 흉험(물비리, 당비리 등의 피부병)을
피하고자 하는 불양(祓禳)의 기원이 포함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이 겪어야 했던 육아의 고단함이 그대로 녹아 있다.
<아기놀림>에서는 어르고 달래며, 아이를 키워내는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
사한다. 때문에 제주도 민간신앙의 실태와 육아습속(育兒習俗) 등 생활습속을 잘
녹여낸 것이 이 토산당굿의 가장 큰 특징이다.⁸⁵⁾

「세경본풀이」나 「초공본풀이」는 같은 여성단골이 많은 곳관의 현장성을 민감
하게 받아들인 흔적을 보여준다. 여성의 삶에서 소재가 선택되고, 관련 내용을
확장시켜 변형하였다. 본풀이뿐만 아니라, <아기놀림>이라는 굿놀이도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토산 당굿에서 행해졌던 <아기놀림>
은 생활의 최접선에서 신앙민에게 전승되었던 당신앙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인 산출물(產出物)이 틀림없다.

83) 문무병, 『제주 민속극』, 제주전통문화연구소, 도서출판 각, 2003, 299쪽.

84) 현용준(2013), 앞의 책, 241~243쪽.

85) 현용준(2013), 앞의 책, 198쪽.

또한 일렛당은 전승민의 생활권 안에 존재했으니,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었다. 토산당곳의 <아기놀림>은 이러한 일렛당의 성격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러므로 산육과 관련된 당 신앙은 의례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전승 의식과 실제 삶의 반영이다. 전승민은 일렛당에 찾아가 심방없이 직접적으로 신에게 기원할 수 있었다. 때에 따라 급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때는 부모나, 조부모, 마을의 웃어른이 심방의 역할을 대신하여 아이의 쾌유를 빌었다.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는 언제든지 일렛당신에게 달려가, 아이의 온전한 성장을 기원하였다.

현재 제주도에서 당곳이 전승되는 신당(神堂)은 300여개소의 신당 가운데 몇 십 정도이다. 심방을 대동(帶同)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는 당들이 꾸준히 늘어난 현상도 그 원인이다. 여기에는 보통 산육·피부병신을 모시는 일렛당이 많은 편이다.⁸⁶⁾ 일렛당의 분포에는 지리적 접근의 용이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개별적으로 찾아가 정성을 드리는 일렛당의 수효가 늘어났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삼성할망을 위한 의례를 치르며, 꽃으로부터 아이를 점지하고 잘 자라도록 지켜준다는 무속의 신을 믿었다. 심방이 주관하여야만 하는 의례는 그렇기에 조금 더 특별하여야 하였다. 의례의 성격은 신앙민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형태의 기원보다 다채롭고 신비스러운 것이 어울렸다. ‘최후의 보루’로 심방을 찾는 만큼 심방 자신의 권위와 효력을 증명하고, 신의 신성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의례를 구성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삼성할망과 관련한 무속 의례에서는 「할망본풀이」의 연창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간략하게 의례를 진행하는 경우, 본풀이의 연창이 생략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온전한 의례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 같은 절차는 거의 필수적이다. 실제로 「할망본풀이」는 제주의 산육신 신화인 동시에, 삼성할망의 본을 푸는 곳의 제차이다. 그리고 큰 곳의 제차(祭次)이자 독립적으로 행해지기도 하는 <불도제>에서 연창된다. 본풀이의 주신격인 삼성할망(생불할망)은 간단한 <넛드림>(넛드림), <할망비넛>, <마누라베송>, <구삼싱넛> 등의 의례에서 수없이 위하여진다.

이 중, <불도제>는 「할망본풀이」의 내용이 의례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 주목해

86) 문무병(2009), 앞의 책, 31쪽.

야 한다. <불도제>에는 모든 곳의 서두에 행해지는 <초감제>, <추물공연> 등의 절차 외에, <수룩침>, <할망드리추낌>이라는 제차가 신을 맞이하는 절차로 덧붙여 진행된다. 이는 신께 소원하는 바를 빌기 위해서 정성을 드리는 수룩과정과 할망드리로 삼성할망을 청하는 과정이다.⁸⁷⁾ 수룩제를 올리는 과정에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예물인 ‘역가’를 올린다. 그런데 따로 ‘노각성즈부연줄’이 삼성할망을 위한 예물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삼성할망의 근본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격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후, <할망드리추낌>, <할망질침>을 통해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아 삼성할망을 곳판으로 들인다. <질침>은 제주도 곳에서 신을 맞이할 때 꼭 필요한 절차이다. 이 같은 맛이 절차 후에 「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 「이공본풀이」가 연창되고, <악심꽃 꺾음>, <꽃 타러 들>의 굿놀이가 이루어진다.

삼성할망이 꽃으로 인간의 탄생과 운명을 관장한다는 인식이 굿놀이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굿거리가 본풀이 형성에 후행(後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본풀이의 연창은 단골에게 심방의 공신력(公信力)을 극대화하고, 신의 권위를 재인지(再認知)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꽃 타러 들>과 같은 의례를 통해, 심방은 신화 행위를 극적(劇的)으로 재현한다. 이 때 유감주술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일렛당신은 신앙민의 실제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굿놀이인 <아기놀림>으로 위하는 반면, 삼성할망은 「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신의 권능을 극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권위를 확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일렛당신과 삼성할망의 신격적 특성이 신앙민의 인식뿐만 아니라, 무속의례에서까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할망본풀이」에서는 동해용왕아기씨가 명진국아기씨에게 투쟁에서 지고, 구삼성할망이 되어 저승에 좌정한다. 동해용왕아기씨의 내력담은 일렛당신의 전형인 용왕녀의 일대기를 차용·변용한 것이었다. 기존의 산육신인 동해용왕아기씨는 부정적 기능만을 소유하였다. 이처럼 「할망본풀이」에는 고유신격이 유입신격에게 산육신의 직능을 내어주는 과정이 나타난다.

유사하게 제주도의 산육신 신앙 체계에 있어 신앙민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

87) 김은희, 앞의 글, 207쪽.

여, 단계적인 절차를 거쳤다. 1차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일렛당신을 찾았다. 그런 뒤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으면 심방을 빌어 삼성할망에게 기원하였다.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에서도 「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우열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할마님 즈순 열다섯 안엿 아기덜은
아과가민 할마님 상(床)에 보아전 기를 멩(命) 잇고 할마님에서
할마님에서 상가매 중가매 하가매 불도막기 운동 허여근
머리 등창 활염도 벗고,
눈에 안질, 입에 가매, 목에 ㄱ른징 화신 장염징 다 풀려근
주는 법입네다.⁸⁸⁾

마마(疫病)를 앓는 어린아이를 삼성할망이 지켜준다는 믿음은 「마누라본풀이」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위의 예문은 마마뿐 아니라, 안질과 피부병에까지 삼성할망의 치병 기능을 확대한다.⁸⁹⁾ 본디 안질, 피부병에 효험이 있어 숭앙되던 신은 일렛당신이였다. 토착신인 일렛당신에게 의지하여 낫기를 바랐던 병환들이 어느덧 삼성할망이 관장하는 영역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구할망줄기로, 강비리, 물비리, 흥허멸, 너벽지, 경풍, 정새, 불어주는,
할마님꺼지, 불도연마지로, 재이르자, ⁹⁰⁾

위는 『풍속무음』의 기록이다. 피부병, 기타 질환을 일으키는 여신이 구할망인 동해용왕아기씨의 줄기에 속한다고 표현하였다. 어느 순간부터 일반신이 당신보다 우위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산육신 직능의 착종현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던 의도로 보인다. 제주도의 산육신 신앙 체계는 당신앙과 일반신신앙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원적 전승이었다. 그러나 일반신인 삼성할망이 그 권위를 인정받으면서, 이원적 전승은 자연스럽게 힘이 실린 쪽에 다른 한 쪽을 포섭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할망본풀이」의 동해용왕아기씨가 명진국아기씨에게 산육

88) 문무병(1998), 앞의 책, 194쪽.

89)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 가정신앙』1, 국립민속박물관, 2011, 254~270쪽.

90) 현용준 엮음, 『風俗巫音(祝祀文)』下, 탐라문화총서 12-2,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4, 201쪽.

신의 자리를 내어준 것처럼, 일뤼당신이 삼성할망에게 혹은 당신이 일반신에게 신적 영향권을 빼앗기는 과정의 연속이라 하겠다.

이처럼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와 「할망본풀이」는 이중 구조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닌다. 신앙 체계의 이중 구조란 당신·일반신으로 이분(二分)되는 일뤼당신과 삼성할망의 이중 존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할망본풀이」는 고유신격과 유입신격의 충돌과 각각의 좌정을 묘사하고 있으니, 이 역시 산육신으로서의 이중 존재라 할 수 있다.

2) 신격과 신화적 사유의 수용과 변용 양상

(1) 산육신 신격의 길항작용

「할망본풀이」는 천신계 속성을 지닌 유입 신격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고유 신격의 내력담을 변용시켰다. 하나의 무속 신앙권에서 신격의 수용과 변용 과정이 「할망본풀이」에 담겨 있는 것이다.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에 이 같은 신격의 수용과 변용 과정을 찾아 볼 수 있는 예가 한 가지 더 존재한다.

산육신과 관련한 서사무가를 보자. 제주도에 「할망본풀이」가 있다면, 본토부에는 「제석본풀이」⁹¹⁾가 전승된다. 본토부는 「제석본풀이」의 구송을 통해, 삼신(産神)과 제석신(帝釋神)의 본을 푼다.⁹²⁾ 유독 제주만이 「할망본풀이」라는 특별한 산육신(産育神) 내력담이 전승되는 이유가 의문이다. 애석하게도 제주도 무속권에서 이 같은 변이현상의 원인은 명료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신화 체계의 미싱링크(missing link)인 셈이다.⁹³⁾

91) 「제석본풀이」는 ‘제석굿’, ‘세존굿’, ‘생굿’ 등의 무의(巫儀)에서 연창되는 생산신 또는 수복신의 본풀이로서, 여주인공의 명칭을 따서 「당금애기」, 「서장아기」, 또는 「제석님네 따님아기」라는 이름으로도 통용되는 서사무가이다. 스님과의 접촉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 삼형제를 낳은 여주인공이 부신(夫神)을 찾아가 아들들과 함께 신직을 부여받는 줄거리가 전국에서 채록된 전승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아들 삼형제는 제석신(帝釋神)으로 여주인공이자 어머니인 당금애기는 삼신(産神)으로 좌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대석, 『무가 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185쪽.

92) 간혹 「제석본풀이」의 이본에 따라, 제석신과 삼신의 성격이 겹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삼형제가 생불신(産育神)으로 좌정하는 내용이 그러하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제석본풀이」가 산육신과 관련한 본토부의 무속 신화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93) 미싱링크(missing link)란 용어는 본디 진화과정에서 멸실된 채, 발견되지 않는 생물종을 뜻한다. 온전한

신화 간 발생의 선후관계나 영향수수 과정을 뚜렷하게 밝힐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때문에 신화의 서사구조가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하여 바뀌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하기 힘들다. 이본 발생의 시기를 명료화 할 수 없고, 다만 그 원인을 추론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니 오랫동안 전승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시기의 역사·문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보는 편이 적절하다.⁹⁴⁾

서대석은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초공본풀이」는 「제석본풀이」의 변이형이라 주장한 바 있다.⁹⁵⁾ 「제석본풀이」는 하늘의 신을 아버지로 하고 마을의 신을 어머니로 하여, 새로운 신이 탄생되는 과정을 서술한 무속신화이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은 국조신화(國祖神話)인 「단군신화」나 「주몽신화」와 상통하는 성격을 갖는다. 1대에서 2대, 혹은 3대까지 이어지는 시조전승의 전통이 담겨져 있는 것도 세 신화의 공통점이다. 「제석본풀이」와 「주몽신화」는 여신과 자신(子神)의 시련, 부친 탐색 친자 확인 화소 등의 면에서도 유사성이 다수 발견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초공본풀이」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고 역시 「초공본풀이」를 「제석본풀이」의 변이형으로 간주하고 변용의 원인을 추론하고자 한다.

「제석본풀이」의 전승 범위는 우리나라 전역에 속한다. 그런데 유독 제주도로 수용되며, 무조기원신화인 「초공본풀이」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면서 제석신(帝釋神)이었던 삼형제는 무조신(巫祖神)인 저승 삼시왕으로, 삼신(産神)이었던 여주인공은 ‘이승삼하늘차지’라는 좌정처를 얻고 당주신으로 좌정한다. 삼신의 자리는 삼성할망에게 내어주었다. 이러한 의문의 해결을 위하여, 「제석본풀이」의 지역별 이본 비교, 「초공본풀이」와 「제석본풀이」의 관련 양상 등을 고찰한 연구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석본풀이」 여주인공의 신직이 전환되거나, 상실되는 현상이 제주에만 한정

신화과정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생물종의 실물이나 화석이 존재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진화과정의 전반적 과정을 알 수 없기에 ‘잃어버린 사슬’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초공본풀이」는 「제석본풀이」의 변이형으로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본토부와의 관련성이 매우 강하다. 그런데도 변용의 과정을 추론할 수 없으니 우리나라 무속체계에 있어 ‘잃어버린 사슬’인 셈이다.

94) 현승환, 「송당 당신본풀이와 서복 전설을 통해 본 탐라사 재해석」,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⑧, 도서출판 각, 2013, 176쪽.

95) 서대석은 「초공본풀이」가 전국적으로 분포된 「제석본풀이」 26개의 이본을 비교한 결과 동북지역, 서남지역, 제주도 지역으로 크게 유형화됨을 밝혔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는 세 유형 중 가장 나중에 분화되어 변형된 성격이 강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변이형이 제주도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제석본풀이」의 전국적 분포와 관련 있음을 논하였다. 서대석, 「서사무가 제석본풀이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9, 175쪽.

되는 것은 아니다. 「제석본풀이」가 전승되는 무가권역별 중 북한지역, 강원도 지역, 경상도 지역의 일대, 전라도 지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채록본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북한지역, 강원도 지역, 경상도 지역의 일대에서 신격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본은 그 수가 극히 적은 특수본이다. ‘여주인공의 신직 전환과 상실’이 지역별로 채록되는 한 양상이긴 하나, 보편성을 띠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저 지역 내에서 巫의 연창에 따라 내용이 첨삭·변형된 형태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본토부에서 전승되는 이러한 결말은 지역 내의 특징에 한정지어져 논하여야만 한다. 지역에서 보편성을 얻지 못한 변형본이 제주도까지 흘러와 유입될 수 없다.

이런 사정이라면, 「초공본풀이」와 제주도 지역과 동일하게 「제석본풀이」의 변이형이 전승되는 전라도 지역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라도 지역의 「제석본풀이」는 삼형제와 여주인공 모두에게 신직(神職)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는 「제석본풀이」의 전승 유형 중, 전라도 무속권만의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해당 지역의 무속 의례적 특징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변이형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전라도의 「제석본풀이」와 제주도의 「초공본풀이」를 연계선상에서 논구하기는 어렵다. 전라도의 전승 범위와 내용은 모두 축소된 반면에, 제주도는 오히려 전라도에 비해 등장인물, 서사구조, 신직부여, 연창 목적 등이 세밀하다. 게다가 후반부의 이야기 역시 전라도와는 달리 확장된 양상을 띤다.⁹⁶⁾

그러나 본풀이의 변형에 대한 전라도 예는 지역적 무속권의 특성이 이를 야기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제주도의 「초공본풀이」 역시 본토부의 「제석본풀이」와의 상관성 속에서 변형의 근거를 찾기보다, 시대적 보편성을 아울러 제주도 내부의 독특한 문화적 고유성, 독자성에서 그 원인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⁹⁷⁾

본토부의 「제석본풀이」는 부계 중심적이며, 남성영웅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96) 홍태한은 「제석본풀이」 각 이본들의 서사구조를 분석한 결과, 다섯 개의 무가권(북한지역 무가권, 동해안 영서지역 무가권, 서울·경기·충청지역 무가권, 전라도지역 무가권, 제주도 지역 무가권)을 구획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중, 전라도지역과 제주도지역은 ‘변이형’에 속하는 성격을 가지는 데, 그 이유는 원형 및 기본형 당금애기와 비교할 때 전라도 지역은 후반부가 축소되었고 제주도지역은 후반부가 확장된 것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홍태한, 『서사무가 당금애기 연구』, 민속원, 2010.

97) 서대석 역시 「제석본풀이」 전승본의 지역 차가 해당 서사무가가 장구한 기간 전승되면서 각 지역문화의 특질에 적합하도록 변모했기 때문이라 이야기한 바 있다. 서대석(2011), 앞의 책, 187쪽 참조.

전형적인 고대·중세적 성격의 본풀이다. 상대적으로 제주도의 「초공본풀이」는 자지명왕아기씨의 출생담, 시련담 등이 본토부에 비해 장황하게 서사의 비중을 채운다. 타 무가권에 비해 여성신에 대한 서사는 확장되었으나, 정작 본풀이의 결말에서 그 여신이 본래의 신직(神職)을 잃었다.

신적 영향력은 본풀이를 전승하는 심방 집단과 이를 공유하는 단골들의 사고 체계와 얽히는 특징이 있다. 하나의 신격이 지역과 나라를 불문하고 숭배되는 것에는 신성성과 권위를 인정하는 무속 공동체의 폭넓은 공감대가 전제 조건이 되어 이를 뒷받침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제석본풀이」의 당금애기는 「초공본풀이」로 수용·변용되는 과정에서 삼신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직접적으로 제주도 서사무가인 「칠성본풀이」에 드러난다.

「칠성본풀이」에서는 원불수륙을 드려 귀하게 얻은 딸이, 연고도 없는 중의 아이를 임신하자 부모가 딸을 무쇄설잡에 넣어 바다로 버린다. 설잡은 제주도 근처 해안에 당도하여 내륙으로 유입을 시도하나, 삼양, 신촌, 조천, 신흥, 함덕, 북촌, 동북, 김녕, 세화 어느 지역도 칠성이 터를 잡을 수 없었다. 마을 당신들이 이미 좌정한 터로 그 기운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당신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인 조천면 신흥리 일대에 이르러서야 좌정이 허가 된다.

앞서 살핀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에 드러나듯, “신격의 충돌이 승패로 양분되는 과정”은 무속 공동체에 내재된 신화적 사고, 즉 신화의 형성 원리를 살필 수 있는 근거이다. 신화의 투쟁에서 패자(敗者)의 거취는 ‘배제’, 혹은 ‘밀려남’으로 상징화된다. 이러한 상징성은 신격의 소실(消失)과 변용(變容)이나, 신격의 정착(定着)·좌정(坐定)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⁹⁸⁾ 승패의 어느 쪽이든 신적 영향력이 신화의 결과와 신의 좌정을 좌우하는 것이다. 단지 당신과 칠성신이 충돌이 영역 다툼을, 「제석본풀이」의 여주인공과 제주도 산육신의 충돌은 권능의 대립을 의미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제석본풀이」의 여주인공은 삼신으로 좌정한 산육신이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98) 고대 상·하 이집트의 신화에서 개별 도시의 성장에 따라 신들의 세력도 확대·축소를 반복하며 세력의 범주에 따라 한 신이 겸하여 다른 한 쪽을 흡수하거나, 둘로 분화된 예도 이와 동일한 맥락이라 하겠다.

고유신격인 일렛당신과, 유입신격이자 일반신인 삼성할망이 산육신으로 숭배된다. 앞서 「할망본풀이」에서 본풀이 상에 나타난 두 여신의 상징성과 투쟁 결과를 다룬바 있다. 따라서 「제석본풀이」의 여주인공의 특성을 이들과 비교함으로써, 동일 직능을 가진 신격의 수용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동일한 유입신격이긴 하나, 명진국아기씨의 탄생담은 고대 영웅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 면모도 남성 영웅에 견줄 만하다. 그에 비해, 「제석본풀이」에 나타나는 여주인공의 내력담은 영웅의 모습보다는 여성의 수동적인 면모와 어머니로서의 모성성이 부각되어 있다. 그런데 토산리 「일렛당본풀이」를 참고할 때, 보편적인 일렛당신의 내력담 역시 남성신과 결연과정과 일곱 아기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신의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제석본풀이」의 여주인공은 지역에 따라 골매기신으로 좌정하기도 한다. 골매기신이란 고을이나 마을을 보호하는 지역관장신을 일컫는다.⁹⁹⁾ 제주도에서는 본향당 자체에 일렛당신을 모시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 일렛당신은 산육신인 동시에 마을수호신이 된다. 이처럼 일렛당신의 성격은 「제석본풀이」의 여주인공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제석본풀이」의 여주인공에게 부여된 삼신의 직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실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제석본풀이」가 유입되어 전승될 당시 이미 일렛당 신앙이 전도적으로 보편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신격의 특성이 유사하여 상대적으로 「제석본풀이」의 여주인공의 영향력이 축소되어, 신직을 잃고 무조신의 어머니로서 신격으로 변용되었을 것이다.

둘째, 「할망본풀이」에 나타난 두 신격의 영향력 다툼이 일어나는 중이나, 혹은 신직의 전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 「제석본풀이」가 유입된 경우이다. 어떤 경우에도 명진국아기씨로 대변되는 막강한 출자 내력과 영웅성을 지닌 신격과의 투쟁에서 「제석본풀이」의 여주인공이 승리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그러므로 전자이든 후자이든 「제석본풀이」의 여주인공은 산육신(産育神)의 투쟁에 새로운 신격으로 가합하기는 그 영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신격의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용과 변용의 결과가 나타났다. 「

99) ‘당금’이란 말의 어원이 고어 ‘둔금’에 소급될 때, ‘촌신(村神)’, 또는 ‘곡식(穀神)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서대석(2011), 앞의 책, 192쪽.

할망본풀이」도 동해용왕아기씨가 명진국아기씨에게 산육신의 자리를 빼앗겼다.

그러나 저승에서 어린아이의 영혼을 관장하는 구삼령으로 신격의 변용이 이루어졌다. 고유신격의 특성을 내력담에 온전히 담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신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초공본풀이」의 자지맹왕아기씨 역시 그렇다. 「제석본풀이」의 여주인공과 많은 부분 닮아 있으나, 제주도 무조신의 어머니이자 당주신으로 변용되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어머니상의 대표적인 원형으로 제주도의 무속체계에 남았다.

이처럼 「제석본풀이」의 유입과 변용은 제주도의 산육신 신앙 체계와의 영향수수 관계 속에서 해석될 때, 그 원인을 조금 더 명료히 구명할 수 있다. 덧붙여 「할망본풀이」에서 신격의 수용과 변용 양상을 투쟁의 결과로 해석하였을 때, 이러한 원리를 「제석본풀이」의 변용과 「초공본풀이」의 탄생에 대입시킬 수 있다. 또한 산육신인 삼신의 직능이 「할망본풀이」의 형성과, 「제석본풀이」의 변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제주도의 신앙 체계 안에서 산육신과 관련된 대표적인 신격들은 수용과 변용의 과정을 끊임없이 겪으며 각자의 위치에 좌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제주도로 유입된 신격에만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며, 기존의 독자적인 고유 신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신격의 수용과 변용의 과정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서로 상반된 특성으로 인해 충돌하였음에도 한 지역권의 무속 체계의 변화를 일으켜 지금의 무속 체계를 탄생시켰다. 그러므로 제주도 산육신인 삼성할망의 지위는 여러 신격들의 끊임없는 길항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와 「제석본풀이」의 변용 과정에 드러나는 것이다.

(2) 신화적 사유의 길항작용

제주도의 서사무가에서 인간 탄생의 원리는 「할망본풀이」를 통해 전해진다. 「할망본풀이」에서는 인간의 근원적 정체성이 서천꽃밭이라는 이상적 공간으로부터 발아한다고 여겼다. 함경남도 함흥에서 채록된 <생긔> 무가의 일부에는 흙을

모아 인간을 창조한 대목이 있다.¹⁰⁰⁾ 그러나 인간의 창조를 주재한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땅을 자양분으로 삼고 탄생하는 인간의 이야기는 「삼성신화」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유럽과 북미의 초기 창조신화도 최초의 인간이 식물처럼 대지로부터 솟아올랐다고 상상하였다.¹⁰¹⁾

「할망본풀이」가 꽃으로부터 인간의 탄생한다는 신화적 사유를 담고 있다면, 본토부의 서사무가 「창세가」에는 인간이 처음 세상에 출현하는 상황이 담겨져 있다. 창세신인 미륵이 하늘에 기원하여, 인간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금벌레와 은벌레를 받아다가 남자와 여자로 키웠다는 대목이 발견된다.¹⁰²⁾ 그러므로 「창세가」는 창세신화이면서 인간의 시원(始原)을 다룬 신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할망본풀이」에 인간의 출현과 관련한 해답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또한 서사무가인 「천지왕본풀이」가 창세신화로 존재하지만, 그 내용에 이미 개벽한 지상에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그려진다. 어떻게 처음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신화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이 제주도 무속공동체에서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천지왕본풀이」는 제주도 큰굿의 <초감제>에서 연창된다. <초감제>에는 <베포도업침>이라는 제차(祭次)가 있다. 이 대목에서 심방은 육갑의 간지로 나타낸 시간의 순서를 사용하여 각각 하늘, 땅, 만물이 생성된 사실을 고한다.

- (1) 개벽시 시절, 천과이(天開)는 즈(子)혹고 지벽(地闢)에는 축(丑會)혹야 인(人開) 인이(寅會) 도업(都業)혹야, 하늘 머리 올려 올 때 상갑즈년(上甲子年) 갑즈월 갑즈일 갑즈시(甲子時)에 하늘 땅 새(間) 떡징ㄴ찌 곱이나옴데 다. (...중략...) 상경 게믄 도업 제일릅긴, 요 하늘엔 하늘로 칭이슬 땅으론 흑이슬 중왕 황이슬 느려 합수뉘뉘 때 천지인왕 도업으로 제이르자. [樂舞] 인왕도업 제이르니, 하늘에 동으론 칭구름 서으로 백구름 낭그론 적구름 북으론 흑구름 중왕 황구름 뜨고 올 때에 수성게믄 도업 제이르자. 요 하늘엔 천왕독은 목을 들러, 지왕독은 늘겘 치와, 인왕독 출릴 칠 때, 갑을동방 니엄 들러 먼동 금동이 터 올 때 동성게믄 도업으로 제이르자. [樂舞] 동성게

100)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251~285쪽.

101) 카렌 암스트롱, 이다희 역,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2011, 51쪽.

102) 서대석(2011), 앞의 책, 143쪽.

문 도업하니, 요하늘엔 해가 먼저 나며 별이 먼저 나옵데다. (…중략…) 선
오성별 도업 홀 때 선오성별 도업으로 제이르자.¹⁰³⁾

(2) 천지간 혼합 되었구나.

천지간 혼합으로 제이르자.

천지간 개벽이 되었구나.

천지간 개벽으로 제이르자.

상갑즈년 갑즈월 갑즈일 갑즈시에

낮도 왁왁 일무꿍, 밤도 왁왁 일무꿍 하옵데다.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하늘 머리 지도투고, 땅의 머리 지늦을 때¹⁰⁴⁾

그러나 육갑의 간지로 나타난 천지개벽론은 신화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유사상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는 중국에서 한 대(漢代)이래 체계화된 오행사상에서 연원한 것으로서 송대 소옹(邵雍)의 『황극경세편(皇極經世篇)』에서 이미 우주생성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⁵⁾

한편, 「할망본풀이」의 채록본들에서 육갑(六甲)과 간지(干支)와 관련된 대목들이 발견된다. 명진국아기씨가 “병인년 병인월 병인일 병인시”에 태어났다거나, “흔손으론 단수 육갑 또 흔손으론 오행육갑을 짚는” 모습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¹⁰⁶⁾ 먼저 육갑의 원리에 의하면, 갑은 하늘(天), 을은 땅(地), 병은 사람(人)을 나타낸다. 따라서 병인년 병인월 병인일 병인시는 최초로 사람이 생겨난 시간이다. 이것은 사람을 잉태·출산·양육시키는 신이 없이 어찌 인간이 태어나 번성할 수 있었냐는 사고다.¹⁰⁷⁾ 특히, 명진국아기씨의 생년월일을 육갑과 관련시켜 이야기하는 채록본들은 이 여신이 ‘숫아났다’고 표현하거나, 하늘과 땅을 부모 삼아 태어났다고 이야기한다.

103) 현용준(2007), 앞의 책, 39~40쪽.

104) 문무병(1998), 앞의 책, 79쪽.

105) 서대석(2011), 앞의 글, 135~137쪽. 해당 단락에서는 관북지역에서 채록된 강춘옥의 <생긔>, 『충청도무가』에 수록된 독경무의 축원문 등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기술되어 있다.

106) 본고 19쪽에 위치한 각주 33번의 예시문, 21쪽에 위치한 각주 40번의 예시문을 참고 바란다.

107) 현용준(2005), 앞의 책, 51쪽.

- (1) 멩진국 할마님은 아버지는 하늘, 어머니는 땅이웁고,
 멩인월 멩인일 멩인시 삼진정월 초사흘날 할마님이 금시상에 나아네
 일굽설이 웨니, 천지이망법
 하늘론 청이슬 내리리는 법,
 땅으론 백이슬 솟는법,
 중앙엔 황이슬로 도업웨는 법을 마련호고
 (...중략...)
 할마님이 일굽설때까지 다 배완 알안 이십테다.
 그때는 천지개벽은 웨엇건만 사름이 하영 안 살 떼난
 할머님으로 들어사지 못호영 이십테다.¹⁰⁸⁾

- (2) 우리 인간에 억조창생(億兆蒼生)은 할마님의 점지이외다.¹⁰⁹⁾

(1)은 <베포도업침>에서 나타나는 천지개벽의 상황을 멩진국아기씨의 일대기에 삽입하고 있다. 인간을 탄생시키는 여신이 태초부터 존재하였고, 세상을 창조하는 과업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제주도의 무속신화에서 천지창조와 인간탄생이 연관이 깊을 듯한데, 신화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논리적 비약이 생겨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방 스스로가 모순적이라 느꼈거나, 신앙심이 깊은 단골들이 여러 차례 해당 문제에 대해 문의를 해오자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라 추측된다. (2)는 삼성할망이 인간탄생을 전적으로 관장하였다고 설명한다. (1)과 (2)의 예 모두, 삼성할망이 태초에 인간을 탄생시켰다고 믿는 것이 무속 공동체의 잠정적 통론(通論)이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제주도 무속 신화 체계의 논리적 비약을 뛰어 넘은 채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것은 인간 창조의 의문을 창세와 관련한 서사무가에서 찾고자 한 흔적이다. 인간창조신화와 인간탄생신화는 서로 다르다. 중국의 지모신 여와의 경우처럼, 황토를 빚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창제(創製)이다. 「창세가」의 경우도 금벌레와 은벌레가 인간으로 변모하게 하였으니, 기존에 없던 대상을 창조·창제한 것이다. 반면에 「할망본풀이」는 인간의 탄생을 주재(主宰)하는 신의 이야기이다.

108) 문무병(1998), 앞의 책, 175~176쪽.

109) 문무병(1998), 위의 책, 187쪽.

제주도의 신화들로부터 인간출현과 인간탄생의 원리를 추론해보자. 「삼성신화」에서는 건국주인 삼성인(三聖人)이 지중용출의 형태로 출현한다. 또한 「할망본풀이」에서는 서천꽃밭의 ‘생불꽃’으로 아이를 점지한다고 전해 온다. 이러한 신화적 사고는 지모신 사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인간의 시원과 관련한 신화공동체의 사유를 알 수 있어 소중하다.

인간 생명의 지중용출은 농경을 시작했던 신석기 시대로부터 발현된 신화다. 원시인들은 농경과 정착생활을 하면서 우주 자연의 신비스러움과 위대함에 눈을 뜨고 종교적 믿음을 가졌다. 또 자기씨족의 조상을 동물이나 식물과 관련지어 숭배하기도 하였다. 인간출현이나 인간창조를 ‘대지’, ‘흙’과 연결 짓는 신화적 사고는 따라서 매우 보편적인 것이었다. 인간은 아니지만, 제주도의 당신본풀이에서 산신(山神)들은 주로 지중용출의 형태로 출현한다.¹¹⁰⁾

그런데 제주도에서 지중용출의 화소는 신적인 존재, 혹은 신성한 존재의 출현담에 차용되었으며, 인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사용되지 못하였다. 대신에 인간은 출현하지 않고 꽃으로부터 점지되었다는 신화적 사유가 전승되었다.

「천지왕본풀이」와 「할망본풀이」에서 ‘꽃’은 신격의 능력을 대변하는 도구였다. 결실, 생명, 탄생 등을 상징하는 꽃의 신화적 의미는 창세신과 산육신의 속성과 유사하다. 그런데 원래 꽃을 틔우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만물의 생산과 창조를 담당하였던 지모신의 역할이었다. 본래는 땅으로부터, 꽃으로부터 생명이 발아하였다는 원시시대의 신화적 사유가 고대·중세를 지나며 도구화 된 것이다.

지모신적 사유가 특정 신격의 능력을 대변하는 도구로 변용된 것은 지모신 신앙의 쇠퇴와 관련이 깊다. 특이한 점은 지모신 신앙의 쇠퇴는 천신 숭배 사상의 확대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천지왕본풀이」와 「할망본풀이」 모두 천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서사무가라는 점이다. 「창세가」 역시 꽃가꾸기 경쟁 화소가 나타나며, 석가와 미륵의 투쟁에서 꽃은 능력을 대변하는 도구가 된다. 「창세가」에서도 세상을 창조한 미륵이 인간만은 하늘에 기원하여 출현하게 하였으므로, 천신숭배

110) 「송당본풀이」, 「호근리 본향당본풀이」, 「사계리 큰물당본풀이」, 「감산리 흥근이마루 으드렛당본풀이」, 「다라곳 본향당본풀이」, 「구좌읍 세화본향당본풀이」, 「남원읍 예촌본향당본풀이」, 「보목리 본향당본풀이」, 「색달본향본풀이」, 「상장하르방당본풀이」가 이에 해당한다. 그 뿐아니라 조천면 북촌, 조천면 선흘, 구좌읍 행원, 한동리 당신본풀이 등에서도 도내의 어느 신성한 곳에서 솟아나는 화소가 나타난다. 현용준(1992), 앞의 책, 190~192쪽.

의 양상이 보인다. 그러므로 ‘꽃 가꾸기 경쟁’이라는 신화소는 지모신의 역할이 천신계 신격에 흡수되며, ‘경쟁담’이라는 신화의 구성원리를 차용하여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토에 전승되는 건국신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선도산(仙桃山)·운계산(雲梯山)의 성모(聖母), 정견모주(正見母主), 지리산 성모(智異山聖母), 「주몽신화」의 유화(柳花)는 각각 신라, 가야, 고려, 고구려의 시조 또는 왕비들이다.¹¹¹⁾ 이들은 모두 지모신 혹은 농경신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성은 천신과의 결연이나, 그 혈통을 이어받은 건국 시조와의 관계 속에서 매우 축소되어 전한다.

그리스의 델포이는 본디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의 아들 피톤이 다스렸던 곳이다. 그러나 태양신 아폴로가 피톤을 은화살로 쏘아 죽이고, 델포이를 차지하였다. 그 때부터 델포이는 태양신 아폴로를 숭배하며 그의 신탁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신화는 전한다. 실제로 델포이에는 BC.2000년경부터 지모신(地母神)의 성소(聖所)가 있었다. 그런데 역사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장소가 아폴로의 신전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예들은 태양신 혹은 천신으로 나타나는 신격에 의해, 지모신 신앙의 쇠퇴가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으로 서천꽃밭의 주화(呪花)로 인간 생명과 운명을 관장하는 삼성할망의 출현을 추측할 수 있다. 「할망본풀이」의 내용을 참고할 때, 동해용왕아기씨와 명진국아기씨는 본래 생불꽃이 없어도 포태를 주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므로 굳이 꽃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이 발아한다는 신화적 사유를 덧입히지 않아도 무리가 없었다. 따라서 「할망본풀이」의 형성에 있어 꽃가꾸기 경쟁은 가장 차후에 삽입된 화소로 보인다.¹¹²⁾

꽃가꾸기 경쟁과 지모신적 사유는 제주도에서 전승되던 인간탄생의 원리는 천신숭배사상과 결합하며, 능력을 표출하는 도구이자 장치로 변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건국신화에서 나타나는 지모신 신앙의 축소와 유사한 양상이다. 천신숭배사상의 확대는 지모신 신앙은 물론 지신(地神)·수신(水神)신앙의 축소를 가져 왔다. 제주도의 심방들은 곳의 켓드리에서 옥황상제를 일만 팔천 신 중 가장

111) 허남춘(2011), 앞의 책, 182쪽.

112) 강정식(2003), 앞의 글, 29~31쪽 참조.

먼저 언급한다. 그 뒤를 이어 땅 차지 신인 지보스천대왕, 산 차지 신인 산신대왕과 산신백관, 바다 차지 신인 대서용군이 차례로 불린다. 「할망본풀이」에서 원래의 생불왕(삼신)이었던 동해용왕아기씨는 물과 연관된 신격이었고, 명진국아기씨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였다. 이 역시 천신숭배사상의 확대에 따른 수신 신앙의 축소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꽃으로부터 인간이 탄생한다는 원시시대의 신화적 사유는 천신 숭배와 결합되어 활발하게 전승되었다. 그리고 <불도제>의 무속의례에 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서천꽃밭’으로 대표되는 인간탄생의 원리는 토착적으로 전승되던 원시적 사유와 고대의 이념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제주의 독특한 신화적 미학의 산물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수록 지중용출과 관련한 인간탄생신화는 전승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갔다. 따라서 이러한 신화적 사유는 당신본풀이, 탐라국 건국신화에 한정되어 전승되었을 뿐, 여타 서사무가들의 교섭양상 속에서는 확장되지 못하였다. 「할망본풀이」에 나타나는 생불꽃의 근원은 지모신 사상으로 대표되는 원시시대의 신화적 사유에 있다. 여러 신격의 충돌과 길항작용으로 이루어진 제주도의 산육신 신앙 체계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이러한 인간탄생의 사유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인간의 창조와 탄생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비약은 오히려, 원시적 사유를 지켜내려 한 모습이다. 「할망본풀이」와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에 나타난 길항작용의 특성이 인간의 탄생과 관련한 신화적 사유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할망본풀이」와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의 미학적 가치

무가의 문학성이나, 문학사적 가치와 의의는 이를 국문학적으로 접근한 방대한 연구의 업적이 있어 여실히 증명된다. 무가는 문학들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 으면서도 현재까지 전승되는 역동적인 갈래이다. 따라서 무가는 여타의 문학들이 그렇듯이, 인간과 그 주변을 둘러싼 삼라만상(森羅萬象) 속에 담겨진 진실한 아

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래서 무가는 오랜 전승만큼이나, 다양한 전승민의 사고에서 비롯되는 미학적 가치를 내포한다. 무속 신앙과 의례 역시 미학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전승공동체가 만들어 낸 역사적 산물의 실체에서 발견되는 미학은 인류 유산의 가치가 가시성에 한정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기에 더없이 중요하다. 본고에서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 이와 관련된 산육신 신앙 체계를 고찰한 결과,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징을 「할망본풀이」와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에 드러난 미학적 가치로 정의하고자 한다.

1) 통일성의 미학

「할망본풀이」는 기존의 토착적 신화소들을 차용하여, 고유 신격과 유입 신격의 대립과 투쟁의 과정을 그렸다. 이러한 「할망본풀이」의 형성 원리는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의 전반에 이중 구조라는 독특한 특성으로 두루 적용되었다. 서사무가가 신앙 체계 전반의 특성을 담고 있는 단서임을 전제로 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하나의 서사무가에 담겨진 원리를 단서로, 일반 민속과 의례에 나타난 여러 양상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할망본풀이」와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다. 동시에 실제 신앙 체계의 성립 과정이 서사무가의 이면에 내재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그 동안 서사무가와 관련 의례를 중심으로 상관성을 논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켜, 서사무가의 형성원리를 실제의 전승과 신앙 체계에 동일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런데 「할망본풀이」와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는 고유 신격과 유입 신격의 대립과 공존 양상이 동일하게 이면에 나타난다. 하나의 원리가 관련 서사무가, 의례, 일반 민속에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통일성의 미학이 「할망본풀이」와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 전반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신격이 하나의 신앙 체계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도 통일성이라 할 수 있다. 「할망본풀이」에서는 동해용왕아기씨와 명진국아기씨가 이승과 저승에서 아이들의 삶과 죽음을 관장한다. 또한 실제 민속에서는 산육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접근성이 용이한 일렉트당신을 먼저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심방을 빌어 삼성할망에게 빌었다. 어느 쪽이든 일부분의 요소만으로는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를 지탱할 수 없다. 여러 요소들이 분포되어 있지만, 결국 통일된 온전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니 통일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2) 상생의 미학

「할망본풀이」의 형성 원리, 제주도 산육 신앙 체계의 이중 구조, 길항 작용의 미감을 찾는 작업은 조동일의 생극론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¹¹³⁾ 대립적이면서도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투쟁하면서 화합하고 화합하면서 투쟁한다. 생성이 극복이고 극복이 생성이니, 상생(相生)이 상극(相克)이고 상극이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생극론의 핵심임을 미리 밝혀 둔다.¹¹⁴⁾

「할망본풀이」에 나타나는 두 여신의 좌정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이난나와 에레쉬키갈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난나는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서 생명의 원리를 상징한다. 생명탄생의 영원한 원천인 것이다. 이난나의 또 다른 측면은 ‘자매’ 에레쉬키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에레쉬키갈은 지하세계의 어두운 측면을 담당하며, 생명을 앗아가는 역할을 한다. 이는 어머니 여신의 단일한 기능이 여신인 ‘자

113) 문학에 있어 생극론의 대입으로 미학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가는 물음은 다음의 지속적인 탐구와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조동일, 『세계문학사의 허실』, 지식산업사, 1991 ; 『生剋論의 역사철학정립을 위한 기본 구상』, 『철학과 현실』, 철학문화연구소, 1994 겨울호 ; 『한국의 문학과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 『변증법과 생극론의 소설 미학 토론』, 『미학, 예술학연구』 11, 한국미학예술학회, 2000 ; 『생극론: 21세기 문명 창조의 지침』, 『사상』 13권 1호, 사회과학원, 2001 ; 『소설 이론의 두 방향: 변증법과 생극론』, 『택민김광순교수정년기념논총』, 새문사, 2004 ;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2001 ; 『세계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2 ; 『한국문학통사』 제4권 전권, 2012.은 모두 생극론에 입각하여 전개되었으며, 생극론이 문학과 문학의 미학적 가치를 밝히는 데 실제인 적용 가능성을 입증한 결과이다. 김현선, 「趙東一生剋論의 生剋關係 — 조동일 학문의 구조와 질적 변혁 과정에 대한 탐구 —」,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문, 2012. 참조.

114) 조동일(2012), 위의 책, 45쪽.

매'를 통해 분화되어 다른 원리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된다.¹¹⁵⁾ 「할망본풀이」와 「이난나신화」 모두 신앙의 한 범주에서 긍정과 부정적 측면이 두 신격의 신능(神能)으로 분리되고 각각 생명과 죽음, 이승과 저승을 관장한다는 점이 같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두 여신의 속성은 자신과 유사한 '자매'라는 연결고리에서 기인한다. 「할망본풀이」의 두 여신에게는 이를 대입할 수 없다. 에레쉬키갈에 비견되는 동해용왕아기씨의 내력은 <고유신격>의 내력담을 변용한 것이고, 인안나와 비례하는 명진국아기씨의 내력은 <유입신격>의 성격이 강하므로 전혀 상반된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상반된 속성으로 인하여 직능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승패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패자는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신으로서 기능한다. 명진국아기씨는 이승에서, 동해용왕아기씨는 저승에서 아기를 담당하는 산육신으로 분리되어 인간 생명의 전반을 주관하였다. 그러므로 어느 한 쪽이 없이는 온전한 신화적 질서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인간 삶의 현상을 구명할 수 없게 된다. 대립적인 관계가 투쟁으로 이어지고 승패를 결정지었으나, 이것이 다시 질서에 편입되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일한 특성이 산육신 관련 무속의례와 일반 민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할망본풀이」에서 패자로 묘사된 <고유신격>(일렛당신)은 실제의 당신앙에서 신앙민의 생활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존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신앙민들은 삼성할망과 관련된 신앙과 의례가 일렛당 신앙보다 상위에 있다는 인식을 가졌다. 이러한 인식은 산육신 신앙 체계의 층위를 형성하였다. 우열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산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를 오히려 견고하게 만들었다. 고유신격과 유입신격의 대립이 신앙 체계의 구조와 단계를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대립적이면서 상보적인 관계를 지닌 두 요소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상생하고 있다.

그리고 「할망본풀이」와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에는 끊임없는 길항작용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론의 미학이 존재한다. 투쟁과 충돌에서 패배한 신격들은 새로운 신격으로 탈바꿈하는 대신에 본연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특성들이 간직되었다. 「할망본풀이」의 동해용왕아기씨와 「초공본풀이」의 자지맹

115) 장영란, 『위대한 어머니 여신 사라진 여신들의 역사』, 살림지식총서 11, 살림출판사, 2007, 33쪽.

왕아기씨는 경우가 그러하다. 충돌과 대립을 반복하면서도 수용과 조화로움을 표방하였고, 이들은 길항작용을 통해서 상극하였으나 상생하고 있다.

삼성할망이 꽃으로부터 인간을 점지한다는 신화적 사유도 이러한 미감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인간탄생의 원리를 담고 있던 원시적 사유가 고대·중세의 신화적 사유와 결합하여, ‘서천꽃밭’을 만들고 꽃으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환상적인 신화적 상상력을 낳았다. 그러나 이는 지모신 신앙의 축소와 천신 사상의 확대라는 이질적 결합이 낳은 변용이다. 상극되는 특성으로 갈등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축소와 변용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작용이 제주도의 산육신 신앙 체계, 나아가 제주도 신화 전반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했으니 상생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IV. 결 론

이 글은 「할망본풀이」에 담긴 투쟁담의 신화적 의의나 당신본풀이와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에서, 그 형성원리를 밝히고자 주목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할망본풀이」 채록본들에서 기존에 주로 다뤄졌던 화소들에 집중하기보다, 주요 신격의 선천전 배경과 자질적 특성의 대립 양상을 주로 다루었다. 그 결과 동해용왕아기씨의 출생내력에 비해 명진국아기씨 전승이 불안정하였으나, 자질적 측면에서는 명진국아기씨가 월등히 앞서도록 묘사된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을 「할망본풀이」에 주요 서사축인 투쟁담과 결부하여 바라보게 되었다. 투쟁담은 신화 안에서 체제, 시대, 문화의 교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를 전제로 「할망본풀이」 형성의 근간을 살피려 한 결과, 본풀이에 등장하는 두 여신이 각각 <고유신격>과 <유입신격>으로서의 특성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할망본풀이」는 고유 신격과 유입 신격의 충돌에 의한 신직(神職)의 전복(轉復) 과정이 담겨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동해용왕아기씨의 내력담을 형성한 고유 신격의 특성을 제주도의 토착적 산육신 신앙인 일렛당 신앙과 결부하여 바라보았다. 일렛당 계열의 서사무가들을 살핀 결과, 가장 넓은 범위로 분화된 일렛당 계열에는 용왕녀 화소가 삽입되었으며, 이는 동해용왕아기씨의 내력담과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할망본풀이」가 동해용왕아기씨의 내력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당신본풀이의 화소를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신본풀이의 소재는 본토부의 것이 이입된 것이 다수이나, 단순히 그 전승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일반신본풀이의 형성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도 하겠다.

또한 「할망본풀이」와 제주도의 산육신 신앙체계는 고유신격과 유입신격의 이중 구조의 특성을 동일하게 지님을 알 수 있었다. 고유신격과 유입신격의 이중구조는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인 동시에 실제 전승의 현장에서도 일렛당신과 삼성할망으로 양분되어 나타났다. <아기놀림>, <불도제>로 나뉘는 의례적 특성이나, 실제 산육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앙민의 해결 절차, 그리고 일반신인 삼성할망이 당신인 일렛당신의 기능을 점점 흡수하고 있었던 사실들이 그 근거이다.

나아가 「할망본풀이」와 제주도의 산육신 신앙체계는 유동적 구조체의 특성을 지녔다. 새로운 요소가 기존의 것과 충돌을 발생시켰을 경우, 이것을 제거하기보다 수용·변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수용과 변용의 범주는 충돌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되, 본디 본질을 잃지 않는 쪽이었다. 「할망본풀이」의 동해용왕아기씨가 고유 신격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진다. 또한 「초공본풀이」의 자지맹왕아기씨가 삼신으로서의 신격을 상실하였으나, 모성성과 여성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삼성할망이 생불꽃을 들고 다니며, 인간의 탄생을 점지한다는 사유는 시간의 간극을 넘어 대립되는 신화적 사고가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융합된 것이다. 원시시대의 지모신 사유와, 천신숭배사상이라는 대립되는 두 요소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신화적 상상력을 발현시켰다.

「할망본풀이」를 형성한 신화적 사고는 제주도 산육신 체계의 전반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다. 서사무가가 무속의례를 넘어 실제의 전승과도 분리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하나의 통일된 원리 안에서 「할망본풀이」와 산육신 신앙 체계 구성의 전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미학적 가치이기도 하다. 서사무가를 의례와 민속에서 분리하여, 개별적인 대상으로 연구하였던 기존의 방식에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발견한 셈이다.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나 균형을 파괴하지 않고, 통일성을 지닌 채 두루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로 소급되었다.

덧붙여 「할망본풀이」와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의 특성에서 제주도 산육신 체계는 어느 한 쪽을 소멸시키기보다,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서로 끊임없이 충돌하면서도, 이 대립은 새로운 창조를 낳았다. 「할망본풀이」 안에서는 천신계 출자를 지닌 유입 신격이 산육신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고유 신격은 그 자리에서 밀려났다. 그러나 실제의 전승에 있어서는 일뤼당 신앙이 신앙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속되었다. 산육신의 직능과 관련하여 「제석본풀이」가 유입되며 여주인공의 신격의 변용된 것도 이러한 원리이다. 지모신적 사유가 천신숭배사상과 대립하여 상쇄작용을 일으키고, 삼성할망의 도구적 장치인 ‘생불꽃’이 되었다. 시간의 간극을 극복하고 유지되어 남았으나, 대립되면서 변용되었다. 상극에서 상생으로, 투쟁에서 조화로의 생극의 미학이 「할망본풀이」와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 전반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일뤼당신 중 가장 분포와 분화 범위가 넓은 토산리 「일뤼당본풀이」만을 중심으로 다룬 점이다. 「할망본풀이」와의 관련 범주 안에서 집중적인 비교를 진행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일뤼당신으로 지칭되면서 다른 내력담을 가진 산육신 계열을 살피지 못하였다. 특히, 이러한 계열 중에는 당신이면서 산육신인 신격이 옥황상제의 딸이나 천계 출자를 가진 경우가 있다. 본 연구의 확장에 꼭 필요한 사항이나, 다루지 못하여 아쉽다.

또한 「제석본풀이」의 수용·변용과 관련하여, 여주인공의 특성과 제주도 산육신 신앙 체계를 살핀 것도 협소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다. 본디 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역사적 사실과의 비교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의 연구가 다소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흘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작업은 제주도의 산육신 체계와 무속 체계 전반이 고정된 범위 안에서 변화한 것이 아님을 방증하는 새로운 시도임에 분명 의의가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명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다시 한 번 필자의 소임과 관련 연구들의 발전을 기대하여 본다.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 열두본풀이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편,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2010.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편,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2009.
- 허남춘 외, 『고순안 심방 본풀이』, 경인문화사, 2013.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2. 국내 단행본

-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도서출판 월인, 2005.
- 강정식·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인의 일생의례 : 제주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 高璨華, 『제주의 전설과 민요 — 濟州의 傳說과 傳來民謠集』, 디딤돌, 2004.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 가정신앙』1, 국립민속박물관, 2011.
- 國文學新講編纂委員會, 『國文學新講』, 새문사, 2004.
- 권태효, 『한국 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 김현선, 「제주도 큰굿의 본풀이와 맞이의 상관성 연구」, 『제주도 큰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굿』, 민속원, 2013.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문무병, 『제주 민속극』, 제주전통문화연구소, 도서출판 각, 2003.
- ,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 서대석, 『무가 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 李能和, 『朝鮮巫俗考』, 동문선, 2002.
- 오출세, 『한국민간신앙과 문학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2.

- 장영란, 『위대한 어머니 여신 사라진 여신들의 역사』, 살림지식총서 11, 살림출판사, 2007.
-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 장주근 외, 『한국민속학개설』, 학연사, 1985.
-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 도서출판 각, 2009.
-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제주시권)』, 도서출판 각, 2008.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2012.
- 진성기, 『제주도무속논고 — 남국의 무속』, 민속원, 2003.
- 허남춘, 『제주도본풀이와 주변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 , 『제주도 마을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 ,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 『濟州道 巫俗과 그 周邊』, 집문당, 2002.
- 현용준 엮음, 『風俗巫音(祝祀文)』下, 탐라문화총서 12-2,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4.
-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한국고전문학전집 2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홍태한, 『서사무가 당금애기 연구』, 민속원, 2010.

3. 외국 단행본

- 미르치아 엘리아데, 박규태 역, 『상징, 신성, 예술』, 서광사, 2001.
- , 이재실 역, 『종교사 개론』, 까치글방, 1993.
- 카렌 암스트롱, 이다희 역,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2011.

4. 국내외 논문

- 강정식,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당신앙 연구」, 『한국무속학』 6집, 한국무속학회, 2003.
- ,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2.
- , 「할망본풀이의 전승양상」,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 발표문, 2003.

- 권복순, 「『천지왕본풀이』와 『삼성할망본풀이』의 인물의 기능과 그 의미: 신직차지하기 경쟁신화소를 중심으로」, 『어문학』 제116집, 한국어문학회, 2012.
- 김영균, 「땃줄코드룬」, 『땃줄과 생명』, 비교민속학회 춘계 학술대회집, 비교민속학회, 2014.
- 김은희, 「제주도 굿놀이의 특징 연구: 『불도맛이』의 굿놀이 연행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 김지민, 「서사무가 『제석본풀이』의 원형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2.
- 김미정, 「제주 『삼성할망본풀이』 애니메이션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2.
- 김현선, 「『삼성할망본풀이』의 여신투쟁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 『민속학연구』 제17호, 국립민속박물관, 2005.
- , 「趙東一 生克論의 生克關係 — 조동일 학문의 구조와 질적 변혁 과정에 대한 탐구 —」,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문, 2012.
- , 「한국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4집, 한국구비문학회, 1997.
- 朴種翼, 「韓國敍事文學의 祈子信仰 研究 — 文獻說話 古典小說을 中心으로 —」, 碩士學位論文, 忠南大學校 大學院, 1989.
- 박홍주, 「삼신신앙과 땃줄간의 상관성,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 『땃줄과 생명』, 비교민속학회 춘계 학술대회집, 비교민속학회, 2014.
- 서대석, 「서사무가 제석본풀이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9.
- 신동훈, 「무속신화를 통해 본 한국적 신 개념의 단면 — 신과 인간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 『비교민속학』 제43집, 2010.
- 신월균, 「한국신화에 나타난 여성상과 여성관」, 『한국민속학』 11, 한국민속학회, 2000.
-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 — 『삼성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韓國言語文學』第 59輯, 韓國言語文學會 2007.
- 양영자, 「제주민요에 형상화된 삼성할망」, 『한국민요학』 제36집, 한국민요학회, 2012.
- 유효철, 「서천꽃밭의 형상과 의미 연구: 『이공본풀이』와 『삼성할망본풀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2004.
- 이경하,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사사시의 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9집, 2009.
- 이수자, 「무속신화 『생불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여신상, 여성상;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여

- 성 인식 2], 『이화어문논집』 14, 이화여자대학교한국어문학연구소, 1996.
- ,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 , 「무속신화 「생불할망본풀이」에 나타난 여신상, 여성상」, 『이화어문논집』 제14집, 이화어문학회, 1994
- ,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 『민요, 무가, 탈춤 연구』, 국어국문학회 편, 태학사, 1998.
- 이안나, 「제주와 몽골의 ‘돌 신앙」, 『한민족문화연구』 第 37輯, 2011.
- 韓萬榮, 「濟州道の 巫樂研究:토산당굿을 중심으로」, 『韓國音樂研究』 제8·9집, 韓國國樂學會, 1979.
-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의 원시·고대·중세 서사시적 특징과 변모」, 『탐라문화』 38호, 탐라문화연구소, 2011.
- ,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연구」, 『탐라문화』 제44호, 탐라문화연구소, 2013.
- 현승환, 「삼성할망 본풀이에 나타난 도민의식」, 『濟研』 創立20周年紀念 第七輯, 濟州大學校 濟州道問題研究會, 1985.
- ,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 13호, 제주문화, 1997.
- , 「송당 당신본풀이와 서복 전설을 통해 본 탐라사 재해석」, 『탐라사의 재해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⑧, 도서출판 각, 2013.
- 홍순례, 「기자신앙연구, 금기와 전승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 Yuan Quan, 「Praying for Heirs : The Diffusion and Transformation of Hārītī in East and Southeast Asia」, 『중국사 연구』 74권, 중국사 학회, 2010.

5. 인터넷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www.culturecontent.com

<부 록> 「할망본풀이」의 서사 단락 비교 (동해용왕아기씨의 좌정담 중심)

구분	출생	기아(棄兒)	제1좌정	갈등발생	경험(자질 대립의 명료화)	제2좌정
㉠	신구월 초아흐렛날 “동이용궁 아방국”과 “서이용궁 어멍국” 사이에서 출생함.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를 지어, 동해용궁 대장장이의 아들이 지은 무쇠석함에 갇혀 버려짐. 버려지기 전 어머니에게 인간세상에 삼신이 없으니 이로 들어서 얻어 먹고 살라는 말을 들었으나, 인간생명을 주는 범만 배우고 해산법은 알지 못한 채 동해바다로 띄워짐.	바다를 표류하다 처녀물가에 당도함. 예정대로 임박사가 무쇠석함을 엿. 동해용왕아기씨 스스로 임박사에게 자신이 삼신으로 왔다고 이야기함. 임박사가 오십이 넘도록 아이기 없어 부인을 잉태하게 해줄 것을 요청함.	임박사의 부인을 수태시켰으나, 열 두달이 지나 죽을 위기에 처함. 은가위로 오른쪽 겨드랑이를 끊어 해산시키려 하다 산모와 아이가 모두 죽을 위기에 놓임. 처녀물가에서 어찌할 줄 몰라 울다가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삼신으로 내려온 명진국아기씨와 마주침.	삼신의 자리를 놓고 꽃가꾸기 경합을 벌이게 됨. 꽃씨를 뿌린 결과, 동해용왕아기씨의 꽃은 뿌리도 하나, 가지도 하나, 꽃송이도 하나인 금뉴울꽃이며, 명진국아기씨의 꽃은 뿌리는 하나나 가지와 꽃송이는 사만오천 육백가지로 번성됨.	경합에 지게 되어 분한 마음에 아이들에게 질병 등의 열두 풍운을 주겠다고 저주함. 명진국아기씨가 자신이 얻어먹을 때, 동해용궁 아기의 인정도 함께 걸어주겠다고 달래어 구삼성으로 좌정함.
㉡	“동이용궁 말갯뜰아기”로 태어남.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를 지어, 무쇠석함 속에 갇혀 바다에 띄워짐.	바다를 표류하다 모래밭에 당도함. 예정대로 임박사가 무쇠석함을 엿. 임박사가 자신들에게 포태를 줄 것을 요청함.	임박사의 부인을 수태시켰으나, 해산법을 몰라 죽을 위기에 처함. 임박사의 원정으로 옥황상제가 명진국아기씨를 생불왕으로 내려보내어, 임박	삼신이 두명일 수 없어 물 담기 경합, 꽃 피우기 경합을 벌이게 됨. 명진국아기씨는 그릇의 물을 온전히 옮겨 담았으나, 동해용왕아기씨의	옥황상제에게 수태된 아이를 낙태시키고,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로 태어나게 하거나 나쁜 버릇, 질병 등을 주거나 열다섯 아래의 아

구 분	출생	기아(棄兒)	제1좌정	갈등발생	경합(자질 대립의 명료화)	제2좌정
				사의 부인이 해산하게 됨.	물은 땅으로 다 스며들, 꽃 역시 명진국아기씨가 심은 꽃은 뿌리는 하나에 가지 송이는 사만육천오백가지로 벌어짐. 동해용궁아기씨가 심은 꽃은 가지는 외가지 하나에 뿌리는 아래로 사만오천육백가지가 뻗음 .	이들을 서천꽃밭으로 데려가게 하도록 명받음.
㉔	“동해용왕 동경국”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남.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를 지어, 무쇠쟁이에게 은상자 낚상자를 만들게 하여 그 안에 가두어 바다로 띄워 버림. 바다를 표류하다 아미산에 도착함. “인뱅스 인대감”이 수륙을 드리던 중, 무쇠석함이 올라오자 대사중과 함께 무쇠함을 엮.	-	-	인대감이 생년월일을 묻자, “삼구월 초아으렛날”이라 답함. 생년월일이 낫기 때문에 저승할망으로 들어서 옥황상제의 복단명 꽃을 차지하라는 말을 들음.	“삼구월 초아으렛날” 아홉 구천왕을 거느리고 붉은 가위, 붉은 참실을 가지고 저승 구천낭기할망을 거느려 저승으로 들어섬.

구분	출생	기어(棄兒)	제1좌정	갈등발생	경합(자질 대립의 명료화)	제2좌정
㉔	“동이요왕 말쑥 뜰아기”로 태어남.	부모에게 불효한 죄로 무쇠쟁이가 지은 무쇠석함에 갇혀 동해바다에 띄워짐.	바다를 떠돌다 백사장에 당도함. 예정대로 임박사에게 발견됨. 임박사가 슬하에 자식이 없으니 부인에게 포태를 줄 것을 요청함.	열두 달이 지나도록 해산을 시키지 못하여 태아가 배 속에서 죽을 지경이 되자, 임박사가 원정하여 옥황상제가 명진국아기씨를 삼신으로 내려보냄. 자신의 수태 준 아이를 명진국아기씨가 해산하게 하자,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짐.	삼신을 결정키 위한 물담기 경합과 꽃가꾸기 경합이 벌어짐. 명진국아기씨의 물은 한 그릇을 모두 채웠으나, 동해용왕아기씨의 물은 모두 땅으로 스며듦. 또한 명진국아기씨가 심은 꽃은 뿌리는 하나에 가지 송이가 사만오천육백가지로 벌어지고, 동해용왕아기씨가 심은 꽃은 뿌리는 사만오천육백 뿌리에 가지 송이는 하나로 벌어짐.	옥황상제가 구천왕으로 들어서 태아를 낫태 시키고, 어린 아이를 저승, 서천꽃밭으로 데려가도록 명함.
㉕	“동해요왕 황정승”, “서해요왕 매화부인” 사이에서 구월 구일날 “동해용궁 뜨넘아기”가 태어남.	부모에게 불효하고, 마을에 폐를 끼친 죄로 나전 칠기를 만드는 사람이 지은 무쇠석함에 갇혀 “스신용왕”에 띄워짐	바다를 떠돌다 요왕의 산호수 가지에 걸림. 예정대로 임박사가 자손을 번성시키고자 불공을 드리다 산신이 현몽하여 무쇠석함을 열게 됨. 임	인간들에게 수태를 주긴 하나, 정상적으로 해산시키지 못하고 낙태를 시키거나, 달을 채우지 않고 태어나게 함. 임박사가 옥황상제에게 원정하	옥황상제가 삼신의 자리를 놓고 둘 아기씨에게 꽃가꾸기 경합을 치르도록 함. 동해용궁아기씨의 꽃은 사만오천육백가지로 뿌	염라대왕의 분부대로 갓난아이들에게 질병과 낙태를 주고 불도맞이에서 삼성할망과 같이 대접받게 됨. 분한 마음을 갖고자 한, 구삼

구 분	출생	기아(棄兒)	제1좌정	갈등발생	경합(자질 대립의 명료화)	제2좌정
			박사가 인간 세상에 삼신이 없으니 들어서 포태를 줄 것을 요청함.	자 명진국아기씨를 삼신으로 내려보냄. 서로 간에 타듬이 일자 불러 올려 문답을 해보아도 판가름이 나지 않음.	리가 뺏고 가지는 외가지가 됨, 명진국아기씨의 뿌리는 하나인데 가지가 송이송이 벌어져 꽃이 등성하게 됨.	싱이 삼싱할망이 옥황에 간 틈을 이용하여 서천꽃밭에 “수레악심멜망꽃”을 퍼트림. 때문에 인간세상에 병들어 죽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자, 모두 제초하여 다시 꽃밭을 가꾸어 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황세군관 도세군관 꽃감관 꽃성인이 서천꽃밭을 지키도록 명함.
㉞	“요왕황저국 말젓뜰아기”로 태어남	부모에게 불효하여 무쇠석함에 갇혀 바다에 던져짐.	바다를 떠돌다 산호수상가지에 걸려, 발견되어 자식없는 사람들에게 생불을 줌.	명진국아기씨과 한 날에 태어난 탓에, 서로 삼신이라 닮음.	꽃가꾸기 경합을 치르기로 함. (경합자 스스로가 제안함) 동해용왕아기씨는 가지는 하나에 뿌리는 사만오천육백가지로 벌어지고, 명진국아기씨는 가지는 하나에 뿌리는 사만오천육백가지로 벌어짐	구불법과 구악심을 불러, 아이들을 자꾸 저승으로 데려가, 그것으로 인정을 달라 하는 저승할망으로 좌정함.

구 분	출생	기아(棄兒)	제1좌정	갈등발생	경합(자질 대립의 명료화)	제2좌정
㉠	“동해용궁 황정승”의 딸로 “구월 초아흐렛날” 태어남. (아기가 없어 옥황과 동계남 상저절에 수록을 드림)	부모에게 불효하고, 행실이 고약하여 옥황상제에게 등장(等狀)을 하였더니, 귀양을 보내라 하여 석함에 갇혀 버려짐.	예정대로 석함을 임박사가 열게 됨. 부모에게 전수받은 대로 임박사의 부인과 인간들에게 포대를 줌.	인간의 출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임박사가 옥황에 원장하여 명진국아기씨가 삼신으로 들어서게 됨.	불만에찬 동해용왕아기씨가 옥황상제에게 등장을 드림. 길모습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어 꽃가꾸기 경합을 치름.	경합에서 진 동해용왕아기씨가 화가나, 흥함을 주겠다고 함.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Principles of
shamanistic Songs 「Halmang-bonpuli」 of Jeju Island

— Based on the analysis of influencing relationship between
「Halmang-bonpuli」 and 「Illetddang-bonpuli」 —

Lee, Hyeon-ju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llustrate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between Jeju Island's shamanistic songs, 「Halmang-bonpuli」 and 「Illetddang-bonpuli」. First, the formation principle of 「Halmang-bonpuli」 was analyzed based on the conflict of two goddesses' characteristics which were revealed during the comparison with different versions. It was also verified that such principles were widely applied even to the ceremonies related to Jeju Island's belief system on childbirth and rearing's god and general folklore. Lastly, the sense of beauty through out the entire Jeju Island's belief system on childbirth and rearing's god could be extracted based on the formation principles of 「Halmang-bonpuli」.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on the 7 different versions of 「halmang-bonpuli」 transcribed recently in Jeju dialect showed that the transmission of Myeongjingung's lady was unstable, compared to the birth background of Donghae-yongwang's lady.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tendency of depicting Myeongjingung's lady much more superior than Donghae-yongwang's lady in the aspect of talent. And the cause of such

tendency was viewed in connection with struggle stories, major axle of epics in 「Halmang-bonpuli」. The struggle stories symbolically reveal the replacement of regime, epoch and culture inside the myth. On this assumption, the basis of the formation of 「Halmang-bonpuli」 was explored, and it was found that the two goddesses appearing in the Bonpuli's had their own characteristics as the <inherent divinity> and the <imported divinity> respectively. Based on this, a conclusion could be obtained that 「Halmang-bonpuli」 contained the overturn process of the divine regime by conflict between the <inherent divinity> and the <imported divinity>.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 of the inherent divinity that formed a background story of Donghae-yongwang's lady was viewed in connection with Illetddang belief, a Jeju Island's native belief on god of childbirth and rearing. The investigation on the shamanistic songs of Illetddang system showed that the story elements of the motif about the daughter of the king of the sea were inserted in the Illetddang system that spreaded the most widely and very similar to the background story of Donghae-yongwang's lady. Therefore, 「Halmang-bonpuli」 belongs to the bonpuli about general shamanic god, but it can be deemed to borrow the story elements of the bonpuli about Village Guarding Shrine's goddess i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e background story of the divinity.

It was also found that the 「Halmang-bonpuli」 and Jeju Island's belief system on childbirth and rearing's god contained the same dual-structure characteristic of the inherent divinity and the imported divinity. This dual structure of the inherent divinity and the imported divinity is the formation principles of 「Halmang-bonpuli」 and, at the same time, it appeared being separated into Illetddang's god and Samsuing-halmang in the sites of actual transmission. Its grounds could be found from the ceremonial characteristic of division into <Agi-nollim> and <Buldo-je>, the resolution procedure of devotees when actual problems related to birth and rearing occurred, and the

fact that an ordinary god, Samsuing-halmang, was gradually absorbing the function of Illetddang's god.

Furthermore, the belief system of 「Halmang-bonpuli」 and Jeju Island's childbirth and rearing's god has the characteristic of a fluid structure. When a conflict occurred between new element and existing one, it took a direction to accept or modify rather than eliminate it. The scope of such acceptance and modification took a tendency of fully reflecting the result of conflict without losing their essentiality.

Donghae-yongwang's lady in 「Halmang-bonpuli」 has intact characteristic of the inherent divinity. This can be also shown in the fact that Jajimaengwang-lady of 「Chogong-bonpuli」 lost its divinity as a Samsin (the name of childbirth and rearing's god) but still maintained its maternity and femininity.

The thought that Samsuing-halmang with Saengbul-flower in her hand blesses with human birth was a product of natural integration of conflicting mythical thoughts beyond the time gap. Two conflicting elements, the mother goddess notion in the primitive times and the heavenly god worship thoughts, brought a new change and triggered a mythic imagination.

The mythical thought that formed 「Halmang-bonpuli」 is well reflected in the entire Jeju Island's belief system on childbirth and rearing's god. It was an important clue to prove that shamanistic songs were not separated from actual transmission beyond shamanistic ceremony. It is also a very important aesthetic value that the overall structure of 「Halmang-bonpuli」 and belief system on childbirth and rearing's god can be addressed in a unified principle. It might as well find another way to expand the boundary of the study from the existing method to study shamanistic songs as individual subjects by separating them from ceremony and folklore. Various elements existed but did not destroy their balance, and were retroactive to one principle that could be universally applicable with unity.

It was also foun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Halmang-bonpuli」 and Jeju Island's belief system on childbirth and rearing's god that they had pursued coexistence rather than eliminated each other. In the stream of history and time, foreign elements have been colliding each other constantly and creating new things. Inside 「Halmang-bonpuli」, the imported divinity who had line of descent from the god of heaven took the seat of childbirth and rearing's god and the inherent divinity was kicked out of the seat.

However, in actual transmission, Illetddang belief has been lasting closely in association with the believers' life. It can also applied to the fact that Introduction of 「Jeosek-bonpuli」 had the divinity of the heroines change regarding the function of childbirth and rearing's god. The earth goddess thoughts made a counterbalance effect in a confrontation with the heavenly god worship thoughts and became 'Saengbul-flower' which was an instrumental device of Samsung-halmang. It overcame and survived over the time gap but its usage has been changing in confrontations. The esthetics of Saenggeuk(生克), from mutual aversion to coexistence and from conflict to harmony, is contained in the entire belief system of 「Halmang-bonpuli」 and Jeju Island's childbirth and rearing's god.

Through this study, it was proven that 「Halmang-bonpuli」 is an important clue to illu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verall system of the relevant believes. This has its significance in the aspect of rediscovering the value of

「Halmang-bonpuli」. It would be desirable in the future to review Jeju Island's shamanistic songs in various fields and conduct many studies to reestablish their values.